

HANSAE YES24
HOLDINGS

HANSAE
fashion worldwide

C&T
COLOR & TOUCH

HANSAE MK

HANSAE DREAMS

FRJ JEANS

YES24.COM

동아출판

YES24 LIVE HALL

YNK MEDIA

iSTYLE24

HANSAE IN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 020

HANSAE
SUMMER
IN

VOL. 020





PGA TOUR & LPGA

Golfwear / Footwear / Caps / Bags / Accessories



LIVE UNDER PAR[®]



DRIVE ON[™]



DRIVEON



서울,경기 롯데본점/롯데잠실점/롯데노원점/롯데미아점/롯데중동점/롯데김포점/현대미아점/신세계의정부점/도곡점/문정점/남양주삼패점/일산덕이점/김포장기점/LF스퀘어연수점/안양평촌지점/수원영통점/안산한대점/시화점/죽전점/포천송우점/롯데아울렛광명점/현대아울렛송도점/파주프리미엄아울렛점/마리오구로점/아이즈빌점/모디아울렛근지점
 강원 AK플라자원주점/동해점
 충청 신세계충청점/천안쌍용점/청주미평점/청주올림픽점/신세계스타일마켓대전점/세이대전점/모디아울렛대전점
 경상 롯데대구상인점/현대부산점/신세계센텀시티점/진주점/칠곡세븐밸리점/구미봉곡점/대구성서점/김해진영점/포항점/부산녹산점/해운대점/모디아울렛대구점/모디아울렛울산점
 전라 광주상무지점/광주세정점/군산점/모디아울렛순천점
 제주 신제주점
 (2019년 8월 오픈 매장 포함)



WWW.LPGAGOLFWEAR.COM | @LPGAGOLFWEAR | 대리점 개설 문의 02-2142-7744

mO;
mOlN



CURLYSUE 
French chic modern



Levi's®



PLAYKIZ PRO



#TBJ #TBJ라이관린 #TBJ유선호 #TBJ오늘의하늘 #TBJ뽀글이점퍼



BUCKAROO

#버커루
#선미
#선미데님



WWW.BUCKAROO.CO.KR | @buckaroo_official



TBJnearby

WWW.TBJ.NET |   @tbj_nearby





FRJ JEANS

#WE_AR_FRJ



A/W 2019 FOR WOMEN AND MEN - BACKSTAGE
WWW.FRJ.CO.KR
@FRJ_JEANS



A N D E W



WWW.ANDEW.CO.KR |   @andew.official

#특별한날엔앤듀

#NBAKIDS
#NBASTYLE



 **nba** kids

WWW.NBAKIDS.CO.KR | @nbakids_kor

 **NBA**



WWW.NBASTYLE.CO.KR | .nbastyle @nbastyle_kor



CONTENTS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20 SUMMER

COVER STORY



여름이라는 계절 앞에는 여러 수식어가 붙곤 한다. 무더운, 지치는, 힘든, 짜증나는... 대개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장의 계절'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봄내내 봉오리로 남아있던 꽃들이 하얗게 빨갛게 피어나고, 논밭의 작물들이 점점 익어가게 되니,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나도 조금은 성장하길 바라게 되는, 그런 날이다.

발행일: 2019년 8월 23일

창간일: 2014년 7월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69

발행인: 김동녕

편집기획: 배연호

인쇄: 동아출판

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한세에스24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T. 02)3779-0800



SUMMER THEME

WE ARE CIRCLE

카메라를 든 한세인
제1회 한세인 사진 공모전 '영예의 수상작은?' 16

한세's NEW FACE
청춘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우리 회사는?" 18

한세인의 책상
신입사원이 바라본 '내 사수의 책상' 이모저모 22

꾸러기 패션왕
휴양지 시선집중!
우리 아이 바캉스룩 24

2019 패션 트렌드
한세 패션 바캉스룩 28

별별업무탐방
충성고객 만드는 일등공신 32

해외법인 직원 릴레이 인터뷰
한세실업 HCM 물류팀 김경순 대리 in Vietnam 36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한세엠케이 중국법인 38

동호회를 가다
한세엠케이 꽃꽂이 동호회 'MK아뜰리에' 40

한세실업 신입사원 베트남 연수
넓은 시선으로 세계를 보다 42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바둑동문전
성균관대, 한세실업배 우승 43

친환경 경영 앞장서는 한세실업
한세실업 '10% FOR GOOD' 캠페인 44

한세에스24문화재단 대학생 해외봉사단
한국-베트남 대학생, 해외봉사로 하나 된 10박 11일 45

혁신을 향한 발걸음
에스24, 디지털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 46

근무환경 개선 프로젝트
동아출판 9층 라운지-
에스24 사무실 UPGRADE 47

아이스타일24가 만난 스타
신인모델 이주연 48

BOOK 핫플레이스
에스24 대구 반월당점 50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책
에스24에서 20년 간 가장 사랑 받은 도서는? 52

FRJ ,4년 연속 미스코리아 대회 공식 후원
2019 미스코리아 미 FRJ 수상자 이해주 54

한여름의 합합축제
NBA 버저비트 페스티벌 2019 55

'+' 시너지
PGA TOUR & LPGA 골프웨어
복합매장 오픈 58

핵인싸 패션템
TBJ X 천하장사 소시지 콜라보 티셔츠 출시 59

행복한 일상, 훈훈한 클래스
제8회 모이몰론 가드닝 클래스 60

회사 근처 맛집으로 놀러오세요
마리 덕후를 위한 상암동 맛집 '마리쿠진' 62

FRJ 이색 클럽
TBJ X 탐앤탐스 콜라보 이벤트 64

예술공간
최은주 관장 취임 계기로
힘찬 도약 꿈꾸는 대구미술관 66

신입사원 봉사활동
함께 사용하는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을 깨끗하게! 68

간식시간
호두 아이스크림 69

책읽아웃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70

문화다방
무더위에 지쳤다면, 떠나자! 문화바캉스 72

동아출판 신간을 소개합니다
(초능력 비주얼씽킹 초등 한국사)
라인업 완성 외 74

당신의 심리
'독서 취향'으로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 76

응답하라 우리 세대
"힘을 내요 X-세대" 78

우리말 바로 쓰기
'삼가하다? 삼가다?' 올바른 표현은? 79

We are great



위대한 챔피언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네가 최고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 전설의 복싱 선수)

To be a great champion
you must believe you are the best.

무수한 임직원들의 작은 힘이 한 점으로 모여 한세를 움직입니다.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말하는 당신에게, 오늘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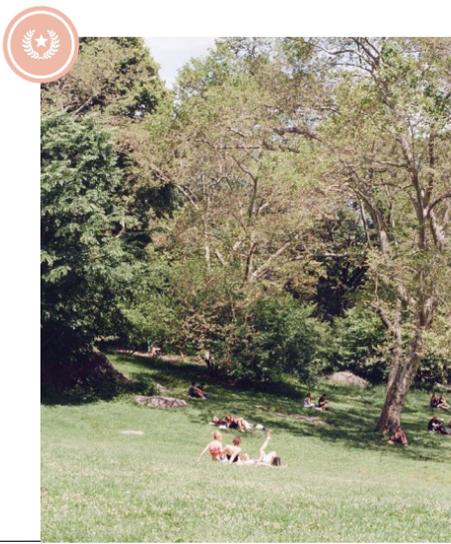
제1회 한세인 사진 공모전 영예의 수상작은?

한세에스24홀딩스 대외협력팀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간 계열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한세인 사진 공모전을 실시했다. '여름' 혹은 '시작'을 주제로 한 총 50여 장의 멋진 작품이 도착했다. 휴가지에서 찍은 시원한 여름 바다부터 난지공원에서 먹은 수박, 뜨거운 피약별 아래 샘플을 옮기는 직원의 뒷모습까지. 예상치 못한 고품질 사진과 가슴 찡한 사연에 심사를 맡은 계열사 홍보 담당자들의 고심이 컸다.

'제1회 한세인 사진 공모전' 영예의 1등은 이번 한세인 표지를 장식한 한세실업 디자인1팀 하진주 사원의 사진 <들꽃>이다. 이 작품은 공모전 주최측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20MB 이상의 고해상도 사진인데다 여름 사보에 딱 어울리는 소재 선정과 색감으로 호평을 받았다. 하진주 사원은 "여름 햇살과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들꽃을 보니 이 무더위 또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 스타벅스 상품권을 목표로 참여하였는데 1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같이 사진을 골라준 디자인 1팀에게 이 영광을 돌리며♥ 저를 뽑아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1등 소감을 전했다. 또한 <들꽃>과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5장의 사진은 제각기 BEST포토상과 GOOD포토상을 수상했다. '여름' '시작'이란 주제를 잘 담아낸 수상작들도 감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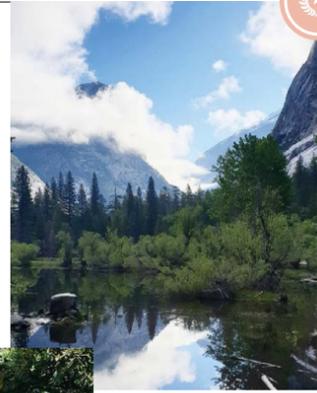


제1회 한세인 사진 공모전 1등
한세실업 디자인1팀
하진주
<들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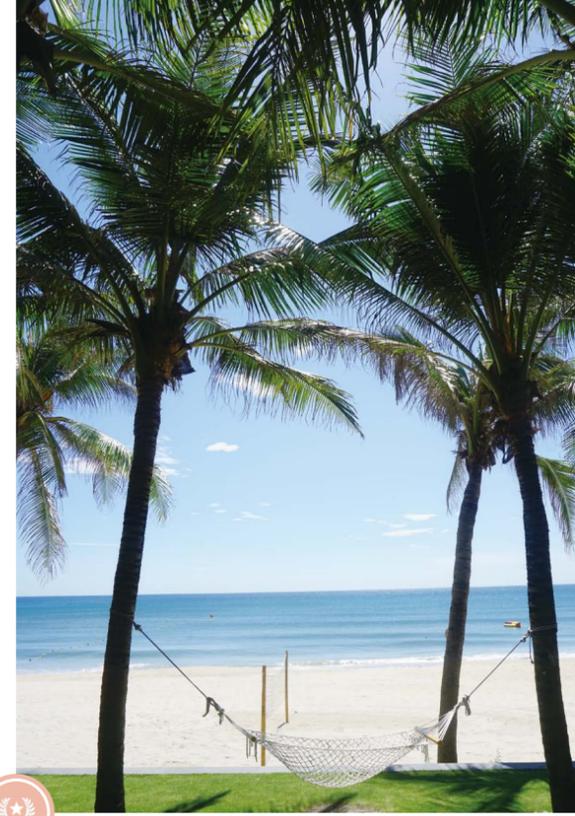


GOOD포토상
한세실업 fabric 1팀 허윤정
<뉴욕에서의 여름 휴가>
뉴욕에서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고 왔답니다 :)

BEST포토상
에스24 도서사업본부 전략영업팀 차정은
<요세미티국립공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요세미티국립공원의 사진입니다.



GOOD포토상
에스24 패션사업본부 패션팀 박지원
<물 주시는 할아버지>
어름하면 연상되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 푸르른 산과 나무, 식물들이 있습니다. (중략)... 푸른 식물들을 위해 물을 주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기가 좋아 양해를 구하고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BEST포토상
동아출판 창의3실 영어3팀 이유미
<다낭의 여름 바다>
가족과 함께 간 다낭의 여름 바다입니다.



GOOD포토상
한세실업 R&D TS TD1 이민지
<바다와 맥주>
시원한 바다와 맥주

청춘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우리 회사는?”

청춘의 싱그러움을 가득 품은 신입사원들이 훈훈한 새 바람이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한세의 토양 위에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이들이 몇 달간 바라본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Interview

조형원 한세실업 수출1C본부3부1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의류벤더 해외영업 직무를 수행하며 의류 샘플 제작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단 발주를 담당하는 팀원 분에게 원단을 받고, 필요한 부자재를 협력업체에 공급받아, 국내/해외 샘플실에 샘플 작업을 의뢰합니다. 이후 에이전시/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내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옷을 입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맡는 벤더인들의 열의에 끌렸습니다. 특히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열정과 함께하고 싶어 입사하게 됐습니다.

첫 월급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곧 첫 월급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한세실업' 자랑 한마디

한세실업은 50여 개의 해외영업팀을 구성해 국가 의류 수출의 참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중미 등 해외 대규모 법인을 운영하며, 현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직장생활을 실제로 해보니 '주말의 속도'가 달라졌어요.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예스24, 한세엠케이 등 계열사 복지혜택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명으로 4행시를 한다면

한 : 한국에서 말아야
세 : 세상에, 아들이!
실 : 실업률이 그렇게 높다던데...
업 : 업(업)마~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김완정 동아출판 창의2실 과학팀 과학2파트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아직은 업무를 맡아 하기보다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로 하이탑 15개정 생명과학2 원고 검토와 교정을 보면서 사수님께 배우고 있어요.

동아출판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옛날부터 출판사에 다니고 싶었는데, 전공이 생명공학이다 보니 기회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과학 전공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땀 흘려왔어요. 신입은 공고가 잘 안 나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친구들과한테 밥 사고 나니 첫 월급은 사라졌어요. 아, 그리고 U2 내 한 콘서트 티켓을 샀어요. 콘서트는 12월인데 벌써 기대돼요.

우리 회사 '동아출판' 자랑 한마디

낮을 가리는 편인데 저희 팀 분들이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적응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공원 앞에 있어서 출퇴근길이 삭막하지 않고 좋다는 점도 있어요.

직장생활,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냉장고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오면 도시락을 넣어두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쓰시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요.

회사명으로 4행시를 한다면

동 : 동기들
아 : 아
출 : 출
판 : 판사 오래 다니자



강지원 에프알제이 디자인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저는 디자인실에서 인턴으로 근무 하고 있어요. 디자이너 분들의 업무를 서포트하며 Q.C 제품들의 피팅도 하고있어요. 아직은 제가 무엇을 맡아서 하기보다는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품평회 준비를 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FRJ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에프알제이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기능성 있는 데님을 선보이는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타사 브랜드와는 차별화게 된 아이템들을 디자인해서 자사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첫 사회인, 첫 월급!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큰 용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에프알제이' 자랑 한마디

에프알제이의 '카페데님'은 가볍고, 착용감이 시원하며 허리의 고무줄 때문에 탄력성이 좋기까지 해서 움직이기도 편합니다. 여름에도 시원한 청바지를 입고 싶으시다면 자신 있게 에프알제이의 카페데님을 강력!! 추천 드립니다:~)

직장생활,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로망이 달랐습니다. 흔히 디자이너라고 하면 우아하고, 멋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화려함 이면에, 정신적, 체력적인 싸움을 이어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아직까진 너무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생기면 꼭 말씀드릴게요 :)

회사명으로 5행시를 한다면
예: 에너지와
프: 프라이드를 가지고,
알: 알차고,
제: 재미있게,
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태우 한세엠케이 TBJ영업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TBJ팀에서 영업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6명의 선배님과 함께 영업점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점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뒤,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점 상황을 고려하여 매출 증진을 목표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세엠케이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영업이란 직무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 유행시절 비즈니스 통역 경험으로 영업에 대해 어케나머로 배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다 중국에서 한류 패션을 선도 하는 한세엠케이에서 영업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용돈을 챙겨드렸고, 첫 월급으로 가족끼리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한세엠케이' 자랑 한마디

우리 회사 1층에는 모든 임직원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마 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피로한 하루에 큰 힘을 주지요.

직장생활,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직장생활 실제로 해보니 하루가 더 빨리 시작되더라고요. 여유는 줄었지만 삶의 보람이 더해졌습니다.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취업 준비 시절, 직장인들이 차고 다니는 사원증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애사심을 키우고 소속감을 높이는 사원증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명으로 5행시를 한다면
한 : 한 걸음 한 걸음
세 :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겠지만, 한세
엠 : 엠케이에서 묵묵히 걸어나가며
케 : K-fashion을 이끌어 갈 리더로 성장하고
이 : 이 순간,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박지현 에스24 기획마케팅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eBook과 관련한 마케팅 및 기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분석하여 프로 모션을 진행하고, 새로운 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어요.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 아이디어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에스24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궁금한 것도 없는데 휴대폰을 붙잡고 뭐든 읽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럴 바엔 책을 읽자 싶어서 eBook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독서 스타일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에스24 콘텐츠사업본부에 지원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티켓을 질렀습니다! 공연을 본다는 사실보다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우리 회사 '에스24' 자랑 한마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좋아요. 신입사원의 말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귀담아 들어주시는 만큼 저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신간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도 에스24만의 장점이고요.

직장생활,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소비 속도,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젠 좀 늦추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희 층에도 간식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층 부러워요.

회사명으로 5행시를 한다면
예: 에스이십사
스: 스트리밍
이: 이복서비스 북클럽
십: 십(십)고 빠르게
사: 사용해보세요! #첫달무료



남현정 한세드림 모이몰론 디자인실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베이비룸 디자이너로서 옴몰 디자인 및 선배님들을 서포팅하는 여러 보조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참 배우는 중이라 실수도 많지만, 예쁘고 착한 선배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군선 대파 같은 존재입니다.

한세드림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오래 전부터 디자인적 방향성과 선택지가 무궁무진한 유아복에 도전하여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유아복 브랜드 중에서도 모이몰론은 인기와 실적, 발전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욕심나는 회사였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핸드폰을 바꿔드리고, 어머니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드렸습니다. 오해 하실까 봐 말씀 드리자면 저는 두 분을 똑같이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회사 '한세드림 모이몰론' 자랑 한마디

신년회때 레스토랑 디너 코스를 먹고, 고급 침대 위에서 영화감상을 하는 품격 있는 취향의 회사입니다. 또한 모든 인원의 생일을 챙겨줄 때에 우스꽝스러운 생일 모자를 씌워 사진을 남기려는 유쾌함을 가진 회사입니다(그 모자 제가 쿠팡에서 샀습니다).

직장생활,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를 많이 상상했는데, 실상은 그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커피를 사 놓고도 바빠서 못 마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외진 공간에 철봉 하나만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땀날 때마다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스트레칭 할 수 있게요.

회사명으로 4행시를 한다면
한 : 한 점의 티끌 없는 오후
세 : 세 시의 맑은 하늘...
드 : 드리워진 가로수길의 그림자...
림 : 임제 다시 일하려 가아지





신입사원이 바라본 '내 사수의 책상' 이모저모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취향과 업무 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사원들이 바라본 '내 사수의 책상'은 어떤 모습일까? 다채로운 이들의 책상을 들여다 보자.



작성자 : 에프알제이 디자인팀 강지원
책상 소유자 : 에프알제이 디자인팀 박진경 선임

저희 선임님의 책상을 소개하려 합니다. 얼핏 봐도 깔끔한 성격이 딱 보이지 않나요? 왼쪽을 보시면 각종 바이어와 파일 및 서류들은 분리해서 한 자리에 정돈해 놓았고, 가운데 보시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핀봉과 라인테이프를 바구니에 담아두신 게 인상적입니다. 바쁘신데도 늘 깔끔하게 책상을 정돈하십니다. 업무 집중을 위해 늘 깔끔함을 유지하시는 게 참 대단하지요?



작성자 : 동아출판 디자인팀 문조현
책상 소유자 : 동아출판 디자인팀 이소연 대리

우리 대리님의 책상을 소개합니다. 디자인팀은 동아출판의 제품 표지, 본문 디자인뿐만 아니라 웹, 마케팅용 포스터, 시트지 디자인을 하는 팀입니다. 디자인팀답게 책상에는 시각적 볼거리가 풍부한데요! 메모, 사진뿐만 아니라 일러스트와 화보들로 다채롭습니다. 모니터 아래에 작은 빈티지 선풍기가 보이시나요? 두 대의 컴퓨터가 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참 더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선풍기가 필수입니다. 대리님 책상만 봐도 디자인팀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작성자 : 예스24 도서사업본부 도서1팀 이주은
책상 소유자 : 예스24 도서사업본부 도서1팀 김도훈 과장

김도훈 과장님과 저는 도서 1팀에서 함께 시/소설,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즐겨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과장님의 책상은 한 마디로 '작은 서점'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권의 책과 마주하는 업무 특성상, 앉은키보다 높게 쌓인 책들과 직접 제작한 굿즈(텀블러)들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 '토니'의 견주이신 과장님께서서는 책상 위에 짙절미 미니 등신대를 올려 놓으셨는데요, 진정한 댕댕이 덕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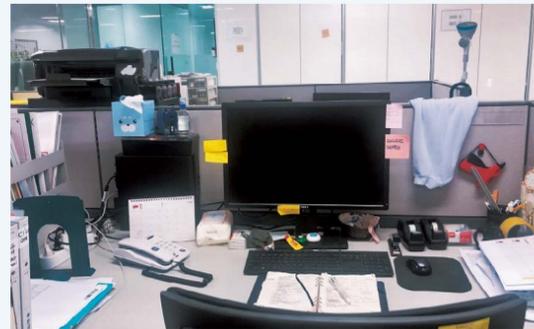
작성자 : 한세엠케이 ANDEW사업부 상품기획팀 민혜정
책상 소유자 : 한세엠케이 ANDEW사업부 상품기획팀 김수정 대리

저희가 맡은 상품기획 업무 중 하나는 분석자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님 책상에는 꼭 채워진 클립통과 집계들 그리고 계산기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또 스케줄을 조율하고 기획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별로 꼭 찬 달력과 다이어리는 필수입니다. 더불어 최근 우수사원 뉴욕 연수를 다녀오신 대리님 책상에는 당시의 추억이 담긴 소품들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리님 옆에서 열심히 업무를 배운다면 대리님처럼 우수사원 연수를 갈 수 있을 날이 오겠죠?



작성자 : 한세드림 컬러수 VMD 최수인
책상 소유자 : 한세드림 컬러수 VMD 이민희 과장

저희 팀장님 책상에서는 제일 먼저 가을 광고컷이 눈에 띄지요? 요즘 저희 팀은 열심히 가을시즌 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상 양쪽엔 팀장님이 키우고 있는 화분이 있어요. 사무실 분위기를 신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나 파일들은 오른쪽 책장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책상 위 친환경 노트패드도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 사용하시는 잇템입니다:-) 책상에서 느껴지는 차분한 분위기와 감각적인 소품들은 팀장님의 취향과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 한세실업 3A본부 2부 2팀 김윤경
책상 소유자 : 한세실업 3A본부 2부 2팀 이승언 주임

저희 팀에서는 Target Adult "A New Day"와 "AVA&VIV"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테일러를 담당하고 계신 주임님의 책상에는 매일 해야 할 업무를 적어두는 다이어리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꼼꼼하신 성격이 잘 드러나지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Inline sample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네요. 디테일러의 필수품 태총도 걸려있습니다. 꼼꼼하면서도 묵묵히 빠르게 일을 처리하시는 주임님을 보면서 저도 빨리 업무가 능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휴양지 시선집중! 우리 아이 바캉스룩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요즘, 피서지에서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 아이 맞춤 패션 스타일을 소개한다.



• 에어조던23 티셔츠

폴리에스터 소재로 통풍성이 좋은 매쉬 민소매티. 전면과 후면의 에어조던 나염이 포인트를 줘 장난꾸러기 같은 인상을 더한다.



• 나이키 에어 스냅백 • CTN아이콘 에어티셔츠

편안한 착용감의 크루넥티셔츠가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와준다. 모자, 티셔츠에 박힌 나이키 로고는 보다 캐주얼한 느낌을 더한다.



• 캔버스키즈 래쉬가드

신축성이 좋고 편안한 착용이 가능한 집업 상의, 큼지막한 캔버스 로고로 포인트를 준 하의로 구성된 아동용 래쉬가드. UPF50+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 라이트웨이트 저지후디

후드가 부착된 가오리핏 저지로 흰 색상에 파스텔톤 무늬로 상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손목림에 썸홀이 있어 손등까지 보호가 가능한 것도 특징.



• 에어조던 드라이핏쇼츠

가볍고 통풍성이 좋은 드라이핏 메쉬 쇼츠. 땀의 흡수와 증발이 뛰어나 휴양지에서 착용하기 안성맞춤.



• 래쉬가드

컬러배색 라글란소매 상의 & 하의로 구성된 래쉬가드. 전면에 큼지막하게 프린팅된 로고가 포인트.



• 민소매 원피스 • 하이탑 데님스니커즈

플라워프린트 원피스는 바캉스 때뿐 아니라 여름철 일상에서도 인기 적합한 디자인이다. 시원한 푸른빛이 특징. 여기에 데님스니커즈로 깔맞춤하면 금상첨화.



• 서핑베어 티셔츠 • 슬림 라이트웨이트 쇼츠 • 로고 패치캡

귀여운 서핑베어가 그려진 티셔츠와 캐주얼함을 강조한 쇼츠 팬츠. 트렌디함을 강조한 여름 패션으로 기능성과 단디한 이미지를 다잡는다.



- 블링스매 프릴티셔츠
- 서스펜더 4부바지

컬러감 있는 아트웍과 핫피스로 포인트를 준 티셔츠와 귀여운 멜빵 팬츠의 조화는 아이들의 귀여움을 극대화 시킨다. 팬츠는 멜빵 형태로도, 기본 형태로도 연출이 가능해 보다 실용적이다.



- 비비드프릴 래쉬가드세트
- 콜쌌머 래쉬가드세트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UV 가공원단을 활용한 래쉬가드 세트. 수영 모자까지 세트로 선명한 컬러감이 포인트다.



- 리프냉감민소매세트
- 루즈앤모어 볼레로
- 핫쌌머쿨냉감원피스

패션과 시원함을 한꺼번에 담은 패션. 민소매세트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루즈앤모어 볼레로 + 핫쌌머쿨냉감원피스는 보다 순수한 아이의 이미지를 드러내준다.



- 썸머콜나염 티셔츠

여름엔 워니워니해도 시원한 컬러감의 셔츠가 최고다. 바캉스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하는 훌치기 나염이 포인트다.



mO;
mOlh

Vacance
Kids
Look



- 엘리 뷁스티에
- 로지로브

시원한 끈나시 뷁스티에가 스타일과 편안함을 덩달아 주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편하게 걸칠 수 있는 로지로브로 트렌디함을 더한다.

- 뮤엘 수영복
- 무스비 래쉬가드

넥 부분의 플레어가 귀여운 뮤엘 수영복, 볼드한 스트라이프 나염이 유니크한 무스비 래쉬가드. 레트로 감성으로 디자인돼 눈길을 끌고, 상의에 반타 뒷지퍼가 있어 착용과 탈의가 편한 아이템.



한세 패션과 함께 만드는 '인생 바캉스룩'

무더위에도 멋을 포기할 수 없는 당신.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아이템이 준비돼 있다. 멋과 시원함,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한세만의 패션을 소개한다. 올 여름도 패션 굴욕 없는 인생샷을 남기게끔 도와줄 것이다.



SunMi's pick vacance look 1

스트라이프 체크 셔츠원피스

미드라이즈 데님쇼츠

다리가 길어보이는 미드라이즈 데님쇼츠에 네이비 컬러 스트라이프 체크 셔츠원피스를 가볍게 걸쳐주어 바캉스 밤 산책에 어울리는 룩.



SunMi's pick vacance look 2

스팽글 레터링 티셔츠

스노우백 슬림배기 데님팬츠

스팽글 레터링으로 화사한 포인트를 준 티셔츠에 스노우백 슬림배기 데님을 연출해 유니크하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갖춘 룩.



SunMi's pick vacance look 3

화이트 스키니

각선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화이트 컬러 스키니 데님룩.



SunMi's pick vacance look 4

스트라이프 체크 셔츠원피스

하이 스키니 데님팬츠

하이 스키니 데님팬츠로 몸매 비율이 더 좋아보이도록 연출하며 선미처럼 스웬웨어와 함께 착용하면 트렌디한 무드도 얻을 수 있다. 화사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체크 셔츠 원피스로 바캉스 느낌 듬뿍!



SunMi's pick vacance look 6

바이크 레터링 자수 볼캡 화이트 스키니

바캉스 필수 아이템 볼캡으로 자외선도 피하고 스타일링도 완벽하게 마무리! 화이트 컬러 볼캡에 바이크 이미지와 영문 레터링으로 버커루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BUCKAROO

SunMi's pick vacance look 5

슬림 스트레이트 데님팬츠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 힛트에 청바지룩으로 청바지 옆라인의 디자인이 버커만의 빈티지한 감성을 더했다.



vacance look 02



festival look
레터링 티셔츠

테이퍼드 쿨맥스 미들톤 데님 팬츠
-
멀리서도 눈에 띄는 라임 컬러 포인트 레터링 티셔츠와 데님으로 완성한 페스티벌룩.

A N D E W



vacance look
스트라이프 아트웍 셔츠

남성 폴리 와플 변형 반팔 티셔츠

테이퍼드 사이드밴딩 팬츠
-
보기만해도 시원한 블루 스트라이프 아트웍 티셔츠에 화이트 팬츠로 청량함을 UP시킨 스타일리시한 바캉스룩.

Vacance

Couple

look

vacance Couple look 1
레터링 프린트 티셔츠

테이퍼드 전체밴딩 팬츠

여성 패턴물 랩 스커트
-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블랙&화이트 컬러 티셔츠로 코디한 커플 바캉스룩.



vacance Couple look 2
아트웍 그래픽 티셔츠

테이퍼드 사이드밴딩 팬츠

그래픽 티셔츠

폴리 솔리드 3부 전체스트링 팬츠
-
엔듀만의 감성이 담긴 개성있는 아트웍 티셔츠로 스타일리시한 특별한 커플 바캉스룩.



"책을 샀더니 굿즈가 많아요"

충성고객 만드는 일등공신



예스24 마케팅본부 사은품 파트
현향숙 파트장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스24 마케팅본부 사은품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향숙이라고 합니다. 2007년 예스24에 처음 입사했어요. MD 업무를 주로 했고 2016년부터 사은품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사은품 파트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제품 할인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똑같은 제품을 팔면서 어떤 베풀음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배송 측면에서는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굿즈로 경쟁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먼저 저희가 사은품을 진행할 만한 캐릭터나 아이템을 찾아보고, 라이선스가 있는 캐릭터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로열티 등 계약내용이구요. 계약이 성사 되면 그때부터 사은품 기획이 시작 됩니다. 매달 1일, 15일에 전사 사은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고객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굿즈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단순 판매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고객분들이 굿즈를 갖기 위해 추가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포인트를 쓰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3. 시즌별 굿즈를 제작할 때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여름 아이템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작년, 재작년 모두 선풍기였어요. 경쟁사에서도 대부분 선풍기를 만들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향 조절이 가능하고 램프 기능을 갖춘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요즘 캠핑이나 콘서트를 갈 때 선풍기를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램프 기능까지 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또 가방에 넣었을 때 알아서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온오프 기능도 추가했어요. 선풍기를 굿즈로 출시하고 고객분들이 경쟁사와 비교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요즘에는 굿즈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고객분들이 SNS에 인증을 활발하게 해주실까 염두에 두기도 해요. 최근에 마티스 작품이 그려져 있는 컵을 굿즈로 기획하면서 여기에 우유나 커피를 담았을 때 사진이나 영상에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잉크블루 컬러로 색을 입혔습니다. 굿즈 디자인이나 셰이프(shape)를 결정하는 게 오래 걸리지, 제품 제작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4. 굿즈를 만들 때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SNS 검색도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전시도 가봐요.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만 본다고 뭐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전시에 가면 유행하는 컬러나 배색을 알 수 있거든요. 일반 생산품을 보는 것과 전시에 가서 작품을 보고 얻는 영감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5. 지금까지 기획했던 굿즈 중에 가장 히트친 상품이 있다면요?

2016년에 라인 프렌즈와 처음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할 때 나 무독서대를 만들었어요. 라인 프렌즈 캐릭터 중 하나인 브라운 얼굴이 들어간 독서대였는데요. 독서대 자체의 단가가 세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주기로 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굿즈를 오픈하고 10초 만에 일일 한정수량이 모두 나갔어요. 라인 프렌즈에서도 이 상품을 구할 수 없다는 문의가 쏟아졌고 중고시장에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고객분들한테 "굿즈를 사니까 책이 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6.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굿즈도 매년 변할 것 같아요.

시용품 파트가 처음 생긴 2016년에는 책 관련 소품을 주로 만들었어요. 북 커버, 파우치, 예코백 같은 굿즈가 주를 이뤘죠. 이런 제품들은 아직도 반응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고객분들이 굉장히 패션에 민감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무리수 아니냐고 했지만 2017년에 스마트터치 장갑을 굿즈로 출시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마스크, 니트 모자 등 책과 관련 없는 소품도 고객분들이 좋아해주셨어요. 올해 초에는 미피 캐릭터로 옷놀이를 만들었는데 의외의 조합이었지만 오픈하자마자 엄청 빠르게 소진 됐어요.



7. 타사에 비해서 예스24 굿즈가 이것 만은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굿즈를 만들면서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실제 백화점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일하면서 일찍 기획을 하고 비수기에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단가는 낮추고 퀄리티는 최대한 일정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패키지도 당장 판매해도 될 정도로 세심하게 만듭니다.

8.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굿즈가 다른가요?

예스24는 20대 고객을 타깃팅으로 한 굿즈를 많이 기획하는 편입니다. 당장 20대 고객이 구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들이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고, 향후 30대, 40대가 돼서 잠재 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애초에 캐릭터 굿즈를 시작하게 된 것도 20대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템도 에어팟 키링 세트처럼 20대가 관심을 많이 가질 만



한 상품을 기획하려고 노력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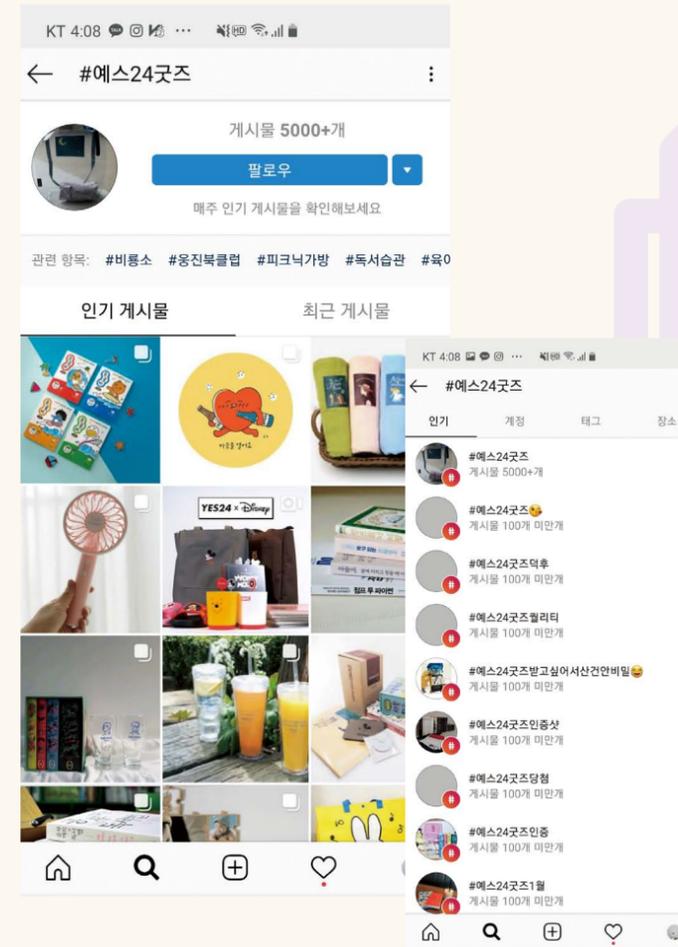
10대는 귀여운 문구 제품을 선호하는데 학부모님들도 보시고 좋아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신경쓰려고 합니다. 4050대는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컬러를 사용한 굿즈를 기획할 때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시나 소설 등 책에 쓰여진 글귀를 지수로 넣은 굿즈도 인기가 좋고요.

9. 시용품 파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잘 사본 사람이 잘 만듭니다. 쇼핑을 좋아하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굿즈도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요즘 친구들이 어떤 굿즈를 좋아할지 알아야 하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은 꼼꼼함이에요. 굿즈 샘플을 받아보고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을지, 또 제품에 들어간 문구에 오타는 없는지, 제품 사양에 잘못된 건 없는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저처럼 번덕스러운 사람이 이 업무에 잘 맞아요(웃음).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굿즈를 기획하고 출시하는 주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판매는 롱텀으로 가지만 굿즈는 2주면 다 소진이 되고 새로운 굿즈를 기획해야 돼요.

10. 마지막으로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우리 회사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편이에요. 오래오래 잘 다닐 수 있는 좋은 업무 환경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오랫동안 다녀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을 위한 작은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스24굿즈
#인스타그램_인증
#뿌듯 #일하는_보람

한세실업 HCM 물류팀 김경순 대리 in Vietnam

낮선 국가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다. 특히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한세에스24홀딩스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 중국, 미국 등 전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다.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시절을 거쳐, 어느덧 완벽 정착해 출장오는 동료들의 투어 가이드를 자처하는 직원들에게 해외에서의 삶에 대해 물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코너를 마련해봤다.



1.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CM 물류팀에서 근무하는 김경순 대리입니다. 물류업무 중 '외환'파트의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반적인 인사총무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출 온지 2년만에 어느덧 현지직원들이 20명 가까이 채용되어, 사진에서 보시는 만큼 현재 HCM의 지원부서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2. 베트남에서 근무 한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저는 운이 좋게도 7년 정도 되는 짧은 근무기간에 2번의 베트남 전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TG법인 수출입으로 첫 번째 베트남 전출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HCM 법인에서 두 번째 전출근무를 2년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제 베트남 근무가 벌써 4년이 지났기에 이제는 전공자 못지 않은 다양한 경험치가 쌓인 것 같습니다.

3. 직접 살아보니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가요

베트남은 꾸준히 경제가 발전되고 있고 생각보다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더 많습니다. 마치 홍콩에 와있는 것 같은 멋진 아파트 단지들도 요새 많이 생기고 있습

니다. 박항서 감독님과 K-POP 열기 덕분에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이지요. 따뜻한 날씨, 주변 동남아 나라 여행지의 접근성 등도 큰 이점입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착하고 정이 많습니다. 아, 물론 말(수다)도 참 많고 K-POP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내에서의 젊은 베트남 친구들은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문화 및 지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가끔 놀라곤 합니다. 한국인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계획된 파티나 야우회를 전혀 부담없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추억으로 사진을 남기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갑작스런 번개(?)나 정도가 심한 음주는 의외로 싫어하는데요. 한국사람이 유별나게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

4.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나 몸이 아플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자유롭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도 한 가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동안의 근무 기간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즐기고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왕 전출을 나오게 되었으니 짧은 기간이지만 베트남 어도 따로 배워보고 현지친구들을 사귀어 보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5. 근무하고 있는 호치민 오피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HCM오피스는 호치민시내 1군의 중심지(하이바중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관리자 약 70명, 베트남 현지직원 약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니 합쳐서 20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GAP, MAST, CARHARTT, KOHL'S, AEO 등의 영업부서 및 원단영업팀, Technical team, 물류팀등 10개정도의 부서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부서나 인원이 더 늘어날 계획이라 HCM오피스는 점점 더 커질 예정입니다.

6. 한국 지인들이 베트남에 오면 반드시 데려가는 관광 명소는?

보통은 가장 일반적으로 성당과 우체국거리는 기본적으로 단 10분이라도 보게 합니다. 그래야 호치민이라는 인증샷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는 통일궁이나 전쟁박물관, 미술관도 호치민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 지인들마다 느끼는 점들이 각자 다른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좋은 루프탑바, 라이브바, 맛집, 마사지사, 카페 등이 아주 많습니다.



7. 호치민에 왔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BEST 3

솔직히 호치민에는 맛있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집이 전부 다 있지만, 호치민 음식을 즐기기에 아래 3가지 식당이 제격입니다. (사실 10군데도 추천가능하지만, 3개만 골라야 했기에...)

- Secret Garden : 계단을 좀 많이 올라가야 하지만, 분위기 좋은 루프탑 느낌의 맛 좋은 베트남 음식점이며 예약필수 (주소 : 158 Pasteur, Quận 1)
- Quan Nem : CNN에서 인정한 분짜 맛집. 처음방문이라면 인원수만큼 분짜를 시키고 4명당 냄 한 개를 시킬 것 (주소 : 15E Nguyễn Thị Minh Khai, Quận 1)
- Pho Quynh : 지금은 많이 유명해지만, 술마시고 마지막 코스로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24시간 쌀국수 집, 퍼보짬을 시킬 것 (주소 : 323 Phạm Ngũ Lão, Quận 1)

8. 앞으로 베트남 근무를 하게 될 한세 가족들에게 한마디

베트남법인은 한세전체의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C/O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자부심과 기대를 가지고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진 경험과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이 힘든 일이던지 행복한 일이던지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HCM 물류팀도 많이 챙겨주시고, 혹시 마주칠 기회가 있으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저는 아웃룩 사진과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알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세엠케이 중국법인인 2014년 6월 상해 구광 백화점에 NBA Style 1호점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콘셉트로 중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매년 성장, 진출 당 해 20억 수준이던 매출은 2018년 영업 매출기준 850억으로 40배 이상 성장했다. 2019년은 매출 1000억 달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전 구성원이 전력질주하고 있다.

STREET FASHiON

한세엠케이 중국법인,

중국 스트리트 패션 선두에 서다



2014년 론칭 후부터 2017년까지는 중점 도시 위주의 post 매장 구축의 시기였다면, 2018년 이후부터는 3, 4선 도시를 위주로 한 유통 확장에 주력하여 현재 중국 내 NBA Style 매장 수는 약 250개를 넘어서고 있다. 그 중 북경시단 조이시티, 항주 은태, 쑤리툰 타이 구리, 정주 따위에칭 등의 매장은 연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18년 기준) 마켓에서 스트리트 패션의 선두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리상 사업을 위해 2018년 7월 처음으로 NBA Style 대리상 수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개 대리상이 수주에 참가하여 30억 원의 수주금액을 달성하여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2019년 2월에 개최한 19FW 대리상 수주회에도 18개 대리상이 참가하여 50억 원을 수주하여, 향후 이어갈 대리상 사업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더할 수 있었다. 최근 NBA Style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상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2019년엔 Unine(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아이돌 그룹), Rap of China(중국판 '쇼미더 머니' 랩퍼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등과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NBA의 5V5(5:5 아마추어 농구 경기) 현장에서 부스를 마련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리고 소비자와 현장에서 컨택하고 있으며, Yohood('18), Sneaker con('19)과 같은 트렌드 컬처 전시에도 매년 참여하여 트렌디한 스트리트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NBA Style의 성공적인 전개에 힘입어 '17년 nba kids도 론칭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약 2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8년과 '19년 상하이 패션위크에 참가하여 대세 키즈 브랜드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있을뿐 아니라, '19년 하반기 nba kids 대리상 전개에 따라 잠재력이 무한한 중국의 키즈 패션 시장에서 한세엠케이가 보여줄 또 한 번의 활약이 무척이나 기대된다.



하루 묵은 스트레스, 꽃향기로 날려요 한세엠케이 꽃꽂이 동호회 'MK아뜰리에'를 가다



7월 25일 늦은 저녁. 수국, 다알리아, 장미, 유칼립투스 등 화사한 빛깔의 꽃들로
서울 강남구 한세엠케이 1층 라운지가 가득 찼다.
은은한 꽃향기를 맡자 하루 묵은 스트레스가 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곧 꽃보다 더 화사한 표정의 여성 회원들이 하나 둘 모였다.

"꽃꽂이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건 아니에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대로 만들어보세요."

강사의 설명에 회원들은 금방 꽃꽂이에 몰두했다. 재료는 전부 같았지만 완성한 작품은 제각각이었다. 여러 색깔의 장미를 많이 꽂아 화려한 느낌을 강조한 작품부터 수국의 단아함이 돋보이도록 꽃을 배치한 작품, 분홍과 초록이 혼합된 자리공을 이곳저곳 배치해 트로피컬한 감성을 표현한 작품, 한쪽 방향으로 꽃을 치우치게 해서 언밸런스한 느낌을 표현한 느낌까지 다양했다.

한세엠케이 꽃꽂이 동호회 'MK아뜰리에'는 지난 4월 골프사업부 LPG디자인팀 정다혜 주임이 만들었다. 정 주임은 "사내에 여성 직원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동호회를 만들자고 생각했다"고 했다.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5명 규모로 개설하기로 했는데 사내 공지를 한 지 30분 만에 인원이 마감 됐고 대기하겠다는 직원도 있었다.

회원들은 매달 한 번씩 전문강사를 초빙해 작품을 만든다. 매번 다른 재료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만든 작품은 개인 소장할 수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사내 동호회 지원금이 있어 외부에서 꽃꽂이 레슨을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다. 무엇보다 회원들은 꽃꽂이 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지친 마음을 예쁘고 향기로운 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스릴 수 있다.

동호회 활동이 끝나도 곧장 집에 가는 회원은 별로 없었다. 대부분이라운지의 하얀 벽이나 거울 앞에 서서 만든 작품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 이 사진들은 SNS에 게시돼 남들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활용되거나, 사진첩에 간직돼 먼 훗날에도 꾸준히 기억될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는다.



<우리 동아리 자랑 한마디>

골프사업부 LPG디자인실 정민진 과장:
아뜰리에 꽃꽂이 동호회를 통해 평소 좋아하는 꽃을 내 손으로 직접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고, 내 마음까지도 아름다워짐을 느낍니다!

TBJ 상품기획실 이수민 주임:
금전적 부담없이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들게 되었고, 해보니 교류가 없는 타 부서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되기도 하고,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버커루 디자인실 권유나 주임:
MK아뜰리에에는 사막 같은 일상속에 오아시스 같은 동호회예요!

“ 넓은 시선으로 세계를 보다 ”



올해도 어김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된 신입사원들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연수를 떠났다. 같은 시기에 뉴욕으로 떠난 우수직원 연수프로그램도 성료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0명의 신입사원들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연수를 떠났다. 이들은 베트남 TG법인과 C&T VINA 염색공장 및 G-TECH을 견학하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견학 중에 신입사원들은 원단 가공, 염색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 의 눈으로 지켜보다 메모를 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하며 열의를 불태웠다. 이어 TG법인에서는 팀을 나눠 공장을 견학한 뒤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전쟁 박물관, 차이나타운, 티엔허우 사원 등 베트남의 주요 역사 문화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한편 우수직원 뉴욕 연수 프로그램에는 27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 뉴욕으로 떠난 이들은 한세실업 디자인센터와 주요 바이어 브랜드 매장 및 대형 마켓 등을 방문해 글로벌 한세의 저력을 확인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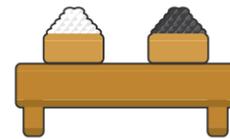
HANSAE
fashion worldwide



HANSAE fashion worldwide **한세실업(주) 제48차 베트남 신입사원 연수**

일시 2019. 05. 29(수) ~ 06. 02(일) 장소 Hochiminh City, Vietnam

성균관대, 서울대 꺾고
한세실업배 우승



지난 7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3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우승 상금 500만원, 준우승 상금 300만원) 결승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서울대학교를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목을 끌었다. 1국과 3국은 초-중-종반을 세 명의 선수가 번갈아 대국하는 '릴레이 대국'으로, 2국은 각 팀에서 3명씩 출전해 3대3 페어대국을 펼쳤다.

성균관대는 1국에서 원성진 9단의 친형이기도 한 원성욱 선수가 중반 주자로 출전했으나 서울대학교 안성문 선수와의 대결에서 형세를 그리치며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중반 주자로 출전한 연구생 출신의 '젊은 피' 정관영 선수가 대역전에 성공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3대3 페어대국으로 속개된 2국에선 서울대학교가 반격에 성공하며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릴레이 대국이었던 최종 3국 또한 중반 주자로 출전한 서울대 오경환 선수가 맹활약하며 2017년 제11회 대회에 이어 서울대가 두 번째 우승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성균관대의 히든카드 최병권 선수가 중반 주자로 출전해 또 한 번 기적 같은 역전을 이뤄내며 성균관대에 대학동문전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1국과 3국에서 성균관대의 승리를 결정지은 정관영, 최병권 선수는 모두 한국기원 연구생 1군 출신이다. 서울대학교는 준결승전에서 강호 연세대학교를 꺾고 결승에 올라 대회 두 번째 우승을 노렸으나 성균관대학교에 막혔다. 성균관대는 우승후보 세한대학교를 누르고 결승에 오른 기세를 몰아 서울대마저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한세실업, 업계 최초 '10% FOR GOOD' 캠페인 추진



한세실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요

10%
FOR
GOOD

한세실업이 올해부터 '10% FOR GOOD' 캠페인을 진행한다. 본 캠페인은 국제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원단 등으로 만든 의류 판매 순수익의 10%를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한세실업은 국제적인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 BCI(Better Cotton Initiative)와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은 섬유, 그리고 컨트롤 유니온(CONTROL UNION) 등의 인증기관에서 RECYCLED(재활용), ORGANIC(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해 발생하는 순수익의 10%를 친환경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세실업이 가장 먼저 기부를 진행한 곳은 네덜란드 비영리 재단인 오션클리언업(The Ocean Cleanup)이다. 네덜란드 출신의 19세 청년이 설립해 화제가 된 이 재단은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이 태평양 해상의 거대 쓰레기 섬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세실업은 친환경 관련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향후 물 관리, 친환경 원료 연구개발(R&D), 친환경 생산시설 개보수 등과 연관된 친환경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기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활용 섬유부터 친환경 운전자재까지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가장 혁신적인 친환경 의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다.

김익환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신뢰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고 물, 전기, 석탄 사용을 줄이는 지속가능 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고객, 파트너사와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8명의 한국-베트남 대학생, 해외봉사로 하나 된 10박 11일

"제가 언제 베트남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열렬한 환호를 받아보겠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외대 김중근 단원)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던 시기에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합격하고 활동하면서 뜻밖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경희대 민수빈 단원)

"한국 친구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의 대학생활에 이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NgôBạchThủy Tiên 단원)

약 열흘 간의 봉사활동을 끝내고 한국 복귀를 하루 앞둔 8월 1일. 한세실업 VN법인 맞은 편 호텔 한 방에 스물여덟 명의 한세에스24문화재단 10기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지난 활동에 대한 소감을 돌아가며 말하는 자리에서 한국, 베트남 학생들은 서로에게 고마웠고 미안했던 마음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지난 2010년 한세실업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 한세에스24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봉사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다. 올해 선발된 10기 봉사단은 한국 대학생 18명과 베트남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한세실업 VN법인이 위치한 호치민 구찌 지역의 장애인 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해 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을 했다. 봉사단원들은 7월 23일 호치민에 도착해 한세실업 VN법인을 방문한 뒤 한세실업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베트남 고등학생들과 만났다. 본격

적인 활동이 시작된 25일부터는 오전에는 장애인 학교에서 5시부터 16시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 이동과 색종이 접기, 사탕 목걸이 만들기, 촉감 놀이, 색깔 놀이 등을 하며 친해졌다. 오후에는 구찌 고등학교를 찾아가 치어리딩, 노래, K-POP 댄스, 태권도 등 준비해간 공연을 선보였다. K-POP에 대한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봉사단원들이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무대를 펼칠 때는 구찌 고등학교의 댄스 동아리 부원 10명이 뛰어나와 함께 춤을 춰 즉석 합동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활동에서 베트남 봉사단원들은 한국 봉사단원들과 베트남 현지 장애인 학생, 고등학생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베트남 봉사단원 10명은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외국어정보대학교 한국어과 소속으로 수준급 통역 실력을 선보인 것은 물론 현지 맛집과 관광영소를 적극 추천해 한국 봉사단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세에스24문화재단 인스타그램 오픈
한세에스24문화재단이 7월 9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 했다.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hansaeys24다. 현재 10기 대학생 봉사단원들의 활동일지 20여권이 업로드 되어 있다. 앞으로 대학생 해외봉사단, 국제문화교류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후원 등 재단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관련 게시물이 정기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YES24, 디지털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 시동

YES24가 디지털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YES24는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안원빌딩에서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환 대표를 비롯한 YES24 임직원,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5개사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YES24는 지난 3~4월 한화드림플러스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했다. 약 1개월 간 회사 비전과 사업계획서, 마케팅 플랜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선정된 업체는 리얼영어, 리얼오픽 등 취업 및 생활 영어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짜너석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기업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커넥을 운영하는 '그림에도', 개인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는 앱 링크를 개발한 '브레인콜라', 증강현실(AR)을 통한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앱 외간다 개발사 '임퍼펙트', 책을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웨인힐스벤처스'까지 총 5개사다. YES24는 향후 6개월 동안 스타트업의 사업 성장을 위해 현업 실무자들을 매칭해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YES24가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산 브레인콜라 대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게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개발하는 서비스 품질을 좌우한다"며 "1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YES24와 협업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환 YES24 대표는 "YES24가 지난 20년 간 쌓아온 사업 노하우와 신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결합하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출판 9층 라운지, 임직원 휴식공간으로 리뉴얼!

동아출판 임직원을 위한 공간, 9층 라운지가 새 단장을 끝냈습니다. 과거 이곳은 회의실로 사용되며 조금은 딱딱한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빨간색 포인트가 곳곳에 담긴 말랑말랑한 라운지로 변신했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원목으로 만든 'DONGA'가 반겨주며 라운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트렌디함을 잃지 않기 위해 임직원이 읽으면 좋은 책도 꽂아두고 잡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의공간에서 이제는 팀원과 담소를 나누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카페를 연상하는 소파형 좌석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라운지 속 미니 도서관처럼 동아출판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앞으로도 동아출판은 임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할 예정입니다. 뜨거운 여름, 레드 포인트가 반기는 동아출판 라운지로 놀러 오세요!



동아출판



YES 24



YES24,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 UPGRADE!

지난 6월 17일부터 일신빌딩 4층 일부 공간을 새롭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책상은 파티션으로 막혀 있어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4층 사무실의 책상은 파티션을 없애고 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좌석 옆에 기둥을 활용한 화이트보드판도 눈에 띄네요. 중앙 냉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윈드바이저를 설치해 모든 공간에서 바람을 쐬 수 있도록 했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여 냉난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문을 열면 아늑한 느낌의 라운지가 등장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스탠딩 테이블이 있고요, 라운지 내의 테이블과 스탠딩 테이블에서는 언제나 간편하게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게 캡슐 커피 머신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3개의 미팅룸 외에도 3개의 포커스룸이 있습니다. 4층 사무실의 키 포인트라 할 수 있는 포커스룸은 통화 업무를 비롯해 집중이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원들에게는 편안하고 쾌적한 사무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4층을 시작으로, 다른 층의 사무실도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점차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전문가, 신인모델 이주연

글. 최하나 사진. 신화섭(스튜디오 무사) 의상협찬. BUCKAROO

소속사 에이코닉
학력 용인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 졸업
데뷔 2016년 2017 S/S 헤라서울패션위크 GREEDILOUS 모델
경력 2019 F/W 서울패션위크 GRAPHISTE MAN.G, TIBAEG, NU PARCC, SEOKWOON YOON, STUDIO SEONG 모델
 2019 S/S 헤라서울패션위크 GRAPHISTE MAN.G, VIBRATE, R.SHEMISTE, STUDIO SEONG, SORRY TOO MUCH LOVE, BLANK, VLEEADA 모델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BLANK, R.SHEMISTE, HETA, VLEEDA 모델
사이트 instagram @dkssid



걱정이 많이 되었나 보다. 내 앞에 앉은 모델은 말을 하는 내내 난감해했다.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자기가 중언부언하는 것 같더라 미안해하기도 했다. 결론만 말하면 전혀 아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그녀의 일들을 말하는 동안 온갖 소회가 스쳐 지나간다는 걸. 그녀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까지 우울해질까 봐 혼자 그 일을 끌어안는다"고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늘 충분치 못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항상 극한으로 자신을 내몰아야 했을 그녀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해서 말이다.

Q. 디자인을 하시다가 모델이 되신 것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스토리가 숨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옷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업으로 삼으려면 방법이 두 가지 밖에 없겠더라고요. 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 모델을 하든지. 꿈이 생각하다가 일단 진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고3 여름방학 때 입시미술을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던 터라 열심히 해도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운이 따라줬는지 한 번에 합격을 했고 그렇게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하다가 문득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의상들을 직접 입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끓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모델에 도전하게 된 거죠.

Q. 여러 방면으로 재능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일러스트 솜씨는 프로수준이라고 하시던데요?

모델 일을 하면서 일러스트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한데...(웃음)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일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인데 그걸 좋게 봐주셔서 소개로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네요.

Q. 평소 스타일을 좀 소개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의상을 즐겨 입으시는지 궁금해요.

저를 보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웃음) 그 정도로 무채색의 옷을 즐겨 입는데 블랙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에요. 베이직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 자체로도 멋스럽기도 하고 다른 옷과 매치하기도 쉽고요.

Q.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모델이 될 수 없는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웃음) 그래서 더더욱 이 직업이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속내를 들다 보면 모델도 참 힘든 점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해요. 주연씨는 어때요?

모델이 된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바라던 일이라 현장에서는 늘 즐거워요. 그런데 이 일의 특성상 나이가 들어서까지 오래 할 수 없고 항상 스탠바이를 해야 하다 보니 미래가 불투명하고 다른 일들과 병행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단점이 큰 직업이지만 그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장점도 큰 것 같아요.

Q. 주연씨를 갤러리 A9의 작업물을 통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제 프로필이 전달된 것도 몰랐어요. 새로운 얼굴을 찾으신다고 해서 소속 에이전시에서 컴카드(Composite Card, 모델이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구성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보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선택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너무 믿기지 않아서 한동안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가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아 버스에서 내릴 정도였죠. 그렇게 합류하게 되었고 다행히 결과물도 잘 나왔지요. 당시 관계자분들이 좋게 봐주셨는지 이번엔 삼성 냉장고 촬영으로 다시 한 번 함께 하게 되었어요.

Q. 노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따라왔을 텐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에요. 특히나 힘든 일은 주위에 알리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죠. 진짜 가까운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체를 말로 풀기 보다는 때선위크와 같이 굵직한 일을 끝내고 나면 여행을 떠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방콕을 자주 가는데요. 정말 힐링하고 오는 기분이랄까 매번 기대를 하게 돼요. 무엇보다 루프탑에서 늘어서 경치를 감상하는 게 좋아요.

Q. 오늘 입으신 의상에 대해서 소개해주시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버커루의 신뜻한 느낌의 흰 티셔츠와 진을 입었는데요. 심플한 의상일 수 있지만 포인트를 줘서 나름대로 스타일링을 좀 해봤어요. 허리에 벨트와 롱 부츠를 믹스매치한 룩이요. 평범해 보이지만, 요즘 유행이라는 훌치기 염색 기법이 들어간 상의에 밝은 컬러감의 청바지를 매치하면 여름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모델분들이 요즘에는 소화하시는 분야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런웨이와 화보촬영 그리고 영상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자신과 가장 공감이 잘 맞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그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지는 주인인데 그중에서 하나만 고르자면 화보촬영 같아요. 일단 결과물이 항상 만족스럽게 나오는 편이에요.(웃음) 그러다 보니 스스로도 굉장히 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런웨이기도 특유의 매력에 있는데 큐 사인과 함께 무대로 나갈 때 쏟아지는 시선이 굉장히 짜릿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옷도 마음껏 입어볼 수 있고요. 영상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어색할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Q. 그렇게 꿈꾸던 모델이 되셨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예상과는 달랐던 점은 없었을까요?

모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이 일을 시작하기엔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 제대로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고 그 후로는 알음알음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의 포문을 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걱정이나 고민이 많았죠. 제기가 큰 편이 아니라 핸드캡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고 다이어트도 혹독하게 해야 했고요. 메이크오버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려고 치열하게 연구했어요. 모든 게 다 저에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참 많이 힘들었죠. 저를 극한까지 내몰아야 했죠. 지금도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걱정은 하시지만 많이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편이에요.

Q. 모델 분들 중에는 해외진출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국내활동에만 전념하시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주연씨는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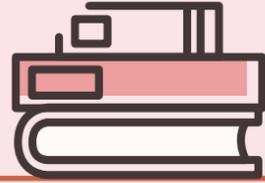
저는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는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다양한 무대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리스크도 크긴 해요. 일단 자비로 체류를 해야 하고 또 그만큼 국내활동에는 공백기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두드려 보고는 싶어요. 대신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갈 기회를 기다려 보려고요.

Q.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실수담이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촬영을 하다가 발을 헛디쳐서 뒤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실장님이 재빨리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조심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몸을 사리지는 않아요. 아까도 난간에 앉아 촬영을 했는데 일단 무섭더라도 프로로서 최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보니 그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잊게 되는 것 같아요.

Q. 자, 그렇다면 공식 질문 하나가 남았네요. 3년 뒤면 2022년인데 그때쯤이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무엇보다 누가 들어도 아는 모델로 자리 잡고 싶고 더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함께 호흡을 맞춰본 분들과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도 기억되고 싶어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복합문화공간 '예스24 대구 반월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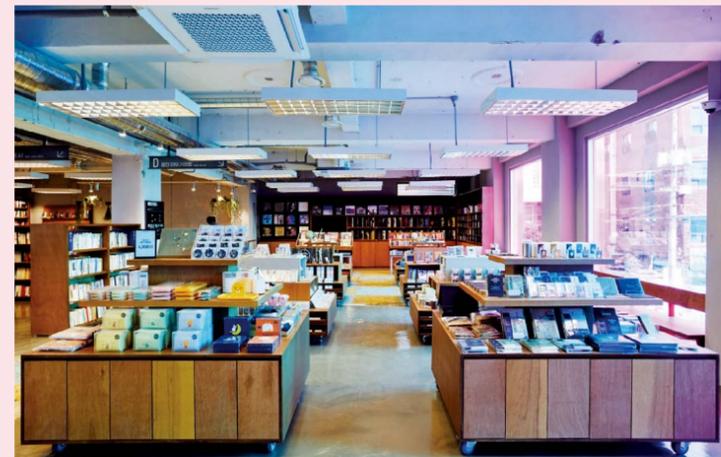
예스24가 지난 6월 14일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 중고서점 '예스24 대구 반월당점'을 오픈했다. 남산동 인쇄골목은 1930년대부터 인쇄소가 밀집되어 발전하기 시작해 2000년도 초까지 전성기를 이뤘던 곳으로, 현재 '남산 100년 향수길'로 조성되어 인쇄골목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예스24는 우리나라 인쇄 산업의 역사가 깃든 남산동 인쇄골목의 고유한 가치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문화 심터를 마련하고자, 인쇄골목 내 자리하고 있던 양말공장을 책과 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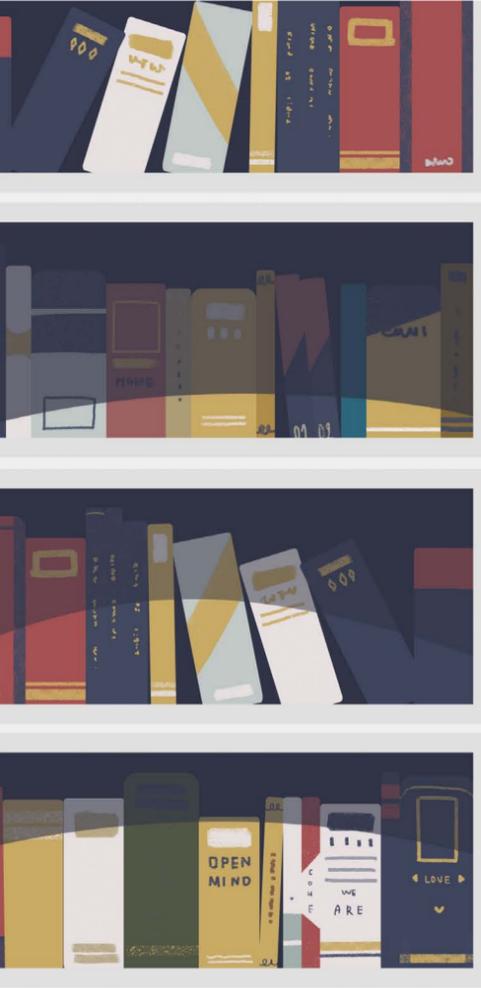


인쇄골목의 분위기와 감성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본래 건물 외관을 최대한 유지하고,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인테리어로 활용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건물 1층에는 독립적인 키즈존을 마련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독서뿐 아니라 미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약 260평 규모로 8만여 권의 중고도서를 비롯해 최신 음반, 인기 DVD와 블루레이, 굿즈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이 갖춰져 있으며,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예스24는 대구 반월당점 오픈을 기념해 예스24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공부머리 독서법>의 최승필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독자가 함께 하는 북토크를 진행하고, 캘리그라피 등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예스24는 대구 반월당점 방문 고객 대상 알찬 혜택을 준비했다. 다 읽은 책을 되파는 '바이백' 서비스 이용 시에 포인트 20%가 추가 적립되며, 첫 바이백 이용자는 포인트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만원 이상 도서 구매 시에는 카카오프렌즈 토트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김석환 예스24 대표이사는 "예스24 중고서점이 대구, 경북의 인쇄 발달사를 담고 있는 인쇄골목에 자리하게 된 점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한다"며 "남산동 인쇄골목이 가진 특별한 문화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예스24 대구 반월당점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예스24 중고서점은 대구 반월당점을 포함해 서울 강남, 목동, 홍대, 경기 기흥, 부산 서면, 수영 F1963 등 총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예스24에서 20년 간 가장 사랑 받은 도서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1,500만여 명에 달하는 누적 회원들의 지난 20년 간의 도서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도서 판매 동향을 살펴봤다.

20년 동안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 받은 도서 분야는 국내문학



20년 동안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 받은 도서 분야는 '국내문학'

예스24가 1999년과 2018년의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를 분석한 결과, 20년 전과 현재 모두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도서 분야는 국내문학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25권, 2018년에는 17권의 국내문학 도서가 베스트셀러 100위에 올랐고, 국내문학은 20년 동안 총 14회 '베스트셀러 100위에 가장 많은 도서가 오른 분야'로 자리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1999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국내 소설은 <이문열 삼국지>, <상도>, <한강> 등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후엔 <칼의 노래>, <미실>, <덕혜옹주> 등 역사적 순간들을 살아갔던 실존 인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 한 소설, <도가니>, <풀꽃도 꽃이다>, <82년생 김지영> 등과 같이 사회 및 역사적 문제를 고발하는 소설이 대세를 이뤘다.

더불어, 지난 20년 간 삶과 관계에 대한 자해를 전하는 국내 에세이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공지영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의 조언부터, 최근에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자기 고백적인 글에서 위안과 공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간 연도별 베스트셀러 1위, 문학 분야 도서 11회로 가장 많아



20년 동안 예스24에서 가장 많이 사랑 받은 도서 <해커스 토익 리딩>, 작가 'J.K. 롤링'



인기 반열에 들어선 인문 교양서 및 자기계발서

2010년 이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미움받을 용기> 등 실용 인문서들이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며 인기 도서 분야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마시멜로 이야기>, <The Secret 시크릿> 등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도서들이 대부분이었던 자기계발 분야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신경 끄기의 기술> 등과 타인과의 관계 속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화법을 제안한 <말 그릇>,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등이 관심을 끌었다.

20년 간 연도별 베스트셀러 1위, 문학 분야 도서 11회로 가장 많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간 예스24의 연도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도서를 살펴보면, 문학 분야 도서들이 11회 1위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연예인의 성 고백기를 담은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1999)를 시작으로, 힐링 에세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2018)까지, 20년 간 새로운 주제, 형태의 문학 도서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20년 동안 예스24에서 가장 많이 사랑 받은 도서 <해커스 토익 리딩>, 작가 'J.K. 롤링'

지난 20년 동안 예스24 연도별 베스트셀러 상위 20위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도서는 7회를 기록한 영어학습서 <해커스 토익 Reading 리딩>이다.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6회로 그 뒤를 이었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정리란 무엇인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꿈꾸는 다락방> 등이 세 차례 순위에 올라갔다. 이와 함께, 20년 동안 예스24 연도별 베스트셀러 20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작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판타지 소설의 거장 J.K. 롤링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독자 팬을 거느린 J.K. 롤링은 예스24 베스트셀러 20위에 20년 간 무려 23회 이름을 올렸고, 총 6년 동안 순위권에 있었다. 그 뒤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9회, 조정래 작가가 8회, 공지영 작가가 7회 순위에 들었다.

한편, 예스24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간의 예스24 베스트셀러 20위 도서를 소개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www.yes24.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RJ, 4년 연속 미스코리아 대회 공식 후원

2019 미스코리아 미(美) 에프알제이 수상자 '이혜주' 선정



2019 미스코리아 미(美) 에프알제이 수상자로 이혜주(21세)가 선정됐다.

지난 7월11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다. 총 32명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미스 대구 출신 이혜주가 2019 미스코리아 미(美) FRJ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FRJ 회사 대표로 디자인팀 김도완 실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직접 수상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019 미스코리아 미(美) FRJ로 당선된 이혜주는 경북대학교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는 수재로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환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대회 기간 내내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합숙 기간에 제공된 FRJ의 미코진(JEAN)을 훌륭히 소화해내 1차 인기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그녀는 향후 1년 동안 FRJ 브랜드 홍보대사 및 모델로 활동하며 WE_AR_FRJ 캠페인에서 동양적인 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FRJ 마케팅 담당자는 "본선 대회를 위하여 그동안 합숙과 여행 연습으로 고생한 후보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번에 당선된 이혜주와 함께 달라질 더 젊고 새로워질 FRJ도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FRJ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타이틀을 협찬하고 있다. 올해도 합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입을 수 있는 미코진(미스코리아진), 티셔츠, 숏팬츠 등 다양한 캐주얼 의류 제품을 420벌 지원했다.

한여름의 힙합 축제



NBA BUZZER BEAT FESTIVAL 2019

힙합 축제 <NBA 버저비트 페스티벌 2019>, 1만 5000여 관객 열광

국내 최대 규모의 힙합 축제 'NBA 버저비트 페스티벌 2019'가 1만 5000여 명의 관객들을 매료시키면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NBA BUZZER BEAT FESTIVAL 2019



패션기업 한세엠케이(대표 김동녕, 김문환)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는 7월 13일 1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서울 KBS 아레나 및 제2체육관에서 'NBA 버저비트 페스티벌 2019'를 진행했다.

행사장은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 힙합 음악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문화, 패션을 사랑하는 많은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행사장엔 80여 명이 넘는 초호화 아티스트들이 모여 열정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다. 농구 프리스타일 퍼포먼스 팀 앵글 브레이커즈가 첫 공연에서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낸 걸 시작으로, NBA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메킷레인 레코즈의 나플라, 루피, 블루를 비롯해 빈지노, 자이언티, 더콰이엇, 비와이 등 현재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뮤지션들이 무대를 압도하는 스웨그 넘치는 힙합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로 공연장을 꽉 채우며 객석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엔딩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나플라와 루피, 블루는 NBA만의 힙합 스트리트 패션으로 스타일링해 무대 위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나플라는 NBA 인기 팀 피닉스의 마스코트 캐릭터 포인트를 준 슬리브리스를 착용했으며, 루피는 체크 패턴의 유니크한 반팔 아노락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배색 모자를 착용했다. 화려하면서도 개성있는 그래피티 패턴 셔츠로 스타일링한 블루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NBA의 스트리트 패션 문화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객 참여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NBA 리그 팬들이 'NBA'를 소리 나는 대로 부르는 애칭에 착안해 '#느바스타일', '#프로노바러' 라는 재미있는 키워드를 강조해 포토존을 구성했으며, 풍성한 NBA 패션 아이템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물했다.

NBA 마케팅 관계자는 "올해 'NBA 버저비트 페스티벌 2019'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기 힙합 아티스트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스포츠 컬처 음악 축제로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NBA다운 유니크한 스트리트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NBA 버저비트 페스티벌'은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라는 NBA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힙합 공연과 다양한 스트리트 문화, 패션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매년 개최하고 있는 문화 행사다. 힙합 공연, 크루 퍼포먼스, 스트리트볼 퍼포먼스, 참여 이벤트 등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고 있다.



NBA의 스트리트 패션 문화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객 참여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NBA 리그 팬들이 'NBA'를 소리 나는 대로 부르는 애칭에 착안해 '#느바스타일', '#프로노바러'라는 재미있는 키워드를 강조해 포토존을 구성했으며, 풍성한 NBA 패션 아이템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물했다.





PGA TOUR & LPGA 복합매장 오픈

PGA TOUR와 LPGA 골프웨어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복합매장이 오픈했다.

2016년 LPGA골프웨어를 성공리에 출범시킨 한세엠케이는 지난 2월 미국 프로골프투어 주관 단체인 PGA TOUR와 단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PGA TOUR를 론칭했다. 그리고 이번에 PGA TOUR와 LPGA골프웨어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PGA TOUR & LPGA 골프웨어' 복합매장을 강남 도곡점에 열었다.

도곡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49개에 달하는 LPGA 골프웨어 매장은 PGA TOUR까지 아우르는 복합매장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남성 제품을 주력으로 출시하는 PGA TOUR의 경우 매장 내 공간을 블랙 앤 화이트로 구성하여, 여성 제품을 판매하는 LPGA 골프웨어와 시각적으로 분리되도록 했다.

한세엠케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화점 및 프리미엄 아울렛을 중심으로 유통 다각화를 진행, 하반기에 'PGA TOUR & LPGA 골프웨어' 65개점 오픈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LPGA 골프웨어는 올 상반기 안정적인 유통을 확보해 1월 1일부터 6월까지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총매출 50.2% 성장 중이며,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87%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TBJ X 천하장사 콜라보 티셔츠 출시...

아문따 구입각



베이직 트렌디 캐주얼 브랜드 TBJ가 진주햄의 국민 소시지 '천하장사'와의 이색 협업 티셔츠 출시했다. 출시 후 이 제품은 '핵인사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TBJ X 천하장사 콜라보 티셔츠는 지난 6월 30일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콜라보 제품 론칭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델들은 TBJ만의 캐주얼하고 내추얼한 오버핏 티셔츠에 실제 천하장사 소시지를 떠올리게 하는 소시지 띠 디자인을 적용한 2가지 종류의 옷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소비자들은 먹음직스러운 노란 소시지 속살 컬러에 천하장사 특유의 빨간 줄이 매치된 티셔츠를 보고 "이건 무조건 사야해", "먹어야해? 입어야해?", "티셔츠인 것을 잊고 소시지 띠를 뜯고 싶게 만든다" 등 워트 넘치는 반응을 보였다.

풍성한 선물이 마련된 프로모션 행사도 인기였다. 먼저, 아이파크몰 내 TBJ 매장을 방문하여 콜라보 아이템을 구매한 고객에게 특별 제작된 '리미티드 소시지 패키지'를 증정했으며, 광 없는 100% 당첨 룰렛 경품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상품들을 선물해 방문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TBJ 천하장사'와 '퀴즈 온 더 아이파크몰'을 함께 진행하고, 천하장사 소시지 고유 캐릭터로 제작한 재치 넘치는 판넬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형 소시지 판넬로 꾸며진 포토존을 운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TBJ 마케팅 담당자는 "TBJ와 천하장사 소시지의 이색적인 만남이 키치하면서도 소장가치 있는 특급 콜라보 티셔츠로 탄생하게 됐다"며 "티셔츠를 포함한 재치있는 프로모션 등을 함께 진행해 유머러스하고, 레트로한 감성에 대한 니즈가 큰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8회 모이몰른 가드닝클래스
in 인천



유아동복 유니크 감성 브랜드 모이몰른이 지난 6월 15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카페 킥다점에서 제 8회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했다. 26쌍의 커플이 클래스 참여의 기회를 얻은 가운데, 총 응모 인원만 무려 586명에 이르며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클래스엔 지난 회에 이어 김하나 보타닉에이치 대표가 강사로 등장해 총 26쌍의 커플들과 즐거운 추억을 함께 나눴다. 제 8회 모이몰른 가드닝클래스에서 만든 소품은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로 떠오른 마크라메 행잉 플랜트. 마크라메는 오로지 손으로만 매듭을 지어 레이

스를 만드는 매듭공예 중 하나로 가방, 쿠션, 화분 걸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이다. 참여한 커플들은 "결혼을 하고, 특히 육아를 시작하고 나서는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열중해 배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진행된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클래스를 마친 후엔 빠질 수 없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에 초청된 부부에게는 월포켓과 주스컵, 보냉 가방, 파우치, 실리큰 매트 등 엄마와 아이를 위한 선물도 증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회사 근처 맛집으로 놀러오세요

마라 덕후를 위한 상암동 맛집 '마라쿠진'

안녕하세요. 상암동 맛집 소개를 맡은 한세드림 마케팅팀 김윤진 주임입니다.

요즘 마라탕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를 가나 마라탕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상암동, 저희 한세드림 근처에 있는 마라탕 맛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상암동에서는 굉장히 소문난 맛집인데요, 한세드림 '마라 덕후'라면 원픽으로 꼽는 곳, 바로 '마라쿠진'입니다. 마라의 맛이 상당히 자극적이라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마라쿠진은 중국 현지의 맛보다는 한국인 입맛에 맞췄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마라쿠진 매장의 외관 모습입니다. 매장 앞에는 마라쿠진 메뉴들을 소개하는 배너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배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점심 메뉴뿐만 아니라 퇴근 후 안주 메뉴로도 제격이기 때문에 인기 만점, 언제나 손님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마라쿠진에 들어가시면 마라탕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흔히 생각하시는 분위기와 다르게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여심을 저격하는 인테리어죠. 상암동 데이트 장소로도 적극 추천 드립니다.

마라쿠진 메뉴판을 살펴볼까요? 메뉴판 뒷면에는 셀프바 이용해서 주문하는 방법이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셀프바에 가서 그릇에 원하는 재료를 담고 마라탕으로 주문할지, 마라상귀로 주문할지 선택하고 고기 추가를 원한다면 소고기 또는 양고기 중에 추가하실 수 있어요.

(*마라탕 최저 주문 11,000원 / 마라상귀 최저주문 16,000원 / 고기류 1인분 4,500원 추가)

셀프바를 이용해도 되고, 특히 '셰프 초이스' 메뉴를 주문하면 마라쿠진 셰프가 직접 재료를 선택해서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마라탕, 마라상귀를 처음 드시는 분이 나 마라쿠진만의 기본 맛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셰프 초이스를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라쿠진 셀프바에는 마라탕, 마라상귀 재료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운 단계는 0단계 하나도 안 매운 맛부터 3단계 진짜 매운맛까지 있고요, 기호에 따라 단계를 조절해서 주문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마라탕은 2단계, 마라상귀는 1단계로 해서 먹는데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마라상귀는 볶아서 그런지 탕보다는 조금 더 매운 맛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면 상귀는 조금 더 약한 맛으로 주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셀프바 오른쪽에는 여러 향신소스와 기본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시와 땅콩도 짭짤하고 맛있어요.

*소스 Tip: 마스스는 얼얼함을 강화해주는 소스, 라소스는 매콤함을 주는 고추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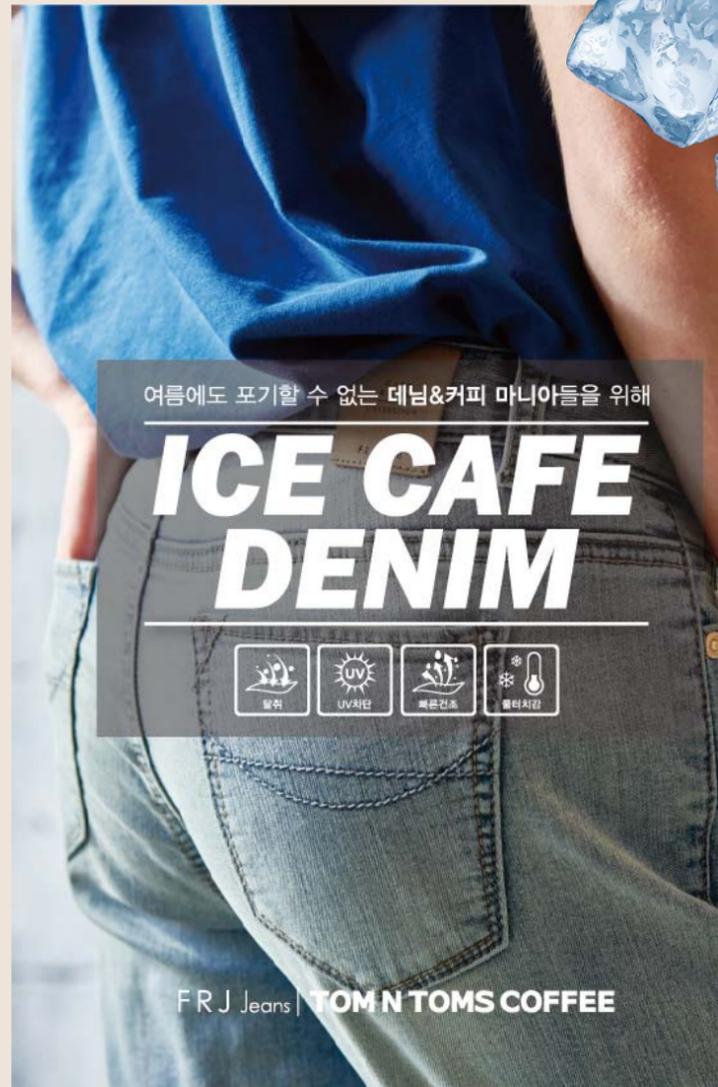


저는 주로 이렇게 마라탕, 마라상귀, 꺾바로우(小)를 주문합니다. 마라상귀를 먹으면서 살짝 맵다 싶으면 마라탕 국물을 달래주고, 심심하다 싶을 타이밍에 달달하고 바삭한 꺾바로우를 하나 집어 먹으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상의 조합입니다. 마라쿠진은 마라탕 육수를 마라 파우더로 사용하지 않고 매일 직접 사골육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해요. 국물이 훨씬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점심 시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런치메뉴로 9,900원, 착한 가격에 마라탕과 마라상귀를 맛보실 수 있고요, 마라탕 국물이 남았는데 아쉽다 싶으시면, 점심 시간에만 무료로 제공되는 공깃밥을 주문해서 말아먹으면 정말 든든한 한 끼 완성입니다. 아직 가지 탕수육은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메뉴는 저녁 시간에만 주문 가능하다고 해요. 조만간 퇴근 후에 마라탕에 가지 탕수육 시켜서 칭따오와 함께 즐길 계획입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2층 217호 (<http://naver.me/GCkRPZRK>)
전화번호: 02-304-5238
영업시간: 11:00AM ~ 10:00PM
주차: 무료주차 2시간 (사보이시티 건물)

커피로 통하는, 데님 그리고 카페 'FRJ X 탐앤탐스'



글로벌 노마드 데님 캐주얼 브랜드 에프알제이(FRJ)가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와 손잡고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마케팅 협업은 FRJ가 업계 최초 커피 원두를 재활용해 만든 '아이스카페 데님'의 특징을 소비자에게 재밌고 효과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3주간 전국의 FRJ 매장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 동안, FRJ 아이스카페 데님이 30% 할인된 건 물론, 제품을 구입한 선착순 1,200명에게 탐앤탐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1잔)이 증정됐다.

또한, 올해는 작년보다 할인율을 대폭 올려 탐앤탐스 영수증을 지참하면 아이스카페 데님을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행사 품목인 아이스카페 데님은 커피 원두를 내리고 난 뒤 남은 찌꺼기에서 나노 입자를 추출

해 원사에 입힌 친환경 데님으로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할 수 있어 기존 청바지보다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2019 뉴버전으로 출시된 아이스카페 데님은 크롭 테이퍼드 핏과 숏팬츠를 추가해 남성 9종과 여성 9종으로 상품군을 대폭 확대했다. 올브러쉬 워싱 기법을 사용하여 빈티지한 느낌이 한층 가미되었으며, 청바지의 디테일한 스티치로 차별화를 주어 스타일과 기능을 두루 갖췄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청바지를 찾던 고객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아이스카페 데님도 할인받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공짜로 마시며 큰 호응을 보였다.

대구미술관 최은주 신임 관장은 “대구와 세계, 현재와 미래를 품는 대구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대구미술관이 새 리더의 리더십을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은주 관장 취임 계기로 힘찬 도약 꿈꾸는 대구미술관



대구미술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립 미술관으로 지난 2011년 5월 26일 개관 했다. 7개 전시 공간을 갖춘 대구미술관은 매년 해외교류전, 기획전, 연례전 등 10여회의 전시를 기획해 연평균 2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구 명소다.

지난 4월 취임한 최은주 신임 관장은 “대구와 세계, 미래를 품는 대구 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장품 1만 점을 목표로 전략적인 수집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적 작품 보존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확한 이력관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작가들의 도전적인 예술 실험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미술관은 현재 구입과 기증을 통해 1300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대구 미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대구 근현대 주요 작가의 작품,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 국내외 우수한 현대미술 작품 등 세 가지 기본 수집방향에 따라 소장품을 수집하고 있다.

최은주 관장-한세예스24문화재단, 미술로 통한 우리의 인연

최은주 관장은 오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인사기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The Hybridity and Dynamism of the Philippine Contemporary Art)>에 자문 역할로 참여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매년 아시아 각국의 다채로운 예술작품을 전시 형태로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베트남 미술전을 시작으로 2016년 인도네시아, 2017년 태국, 2018년 미얀마에 이어 올해는 필리핀 미술을 주제로 한 미술전을 개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 홈페이지(<http://hansaeyes24foundation.com>)와 페이스북([hansaeyes24foundation](https://www.facebook.com/hansaeyes24foundation)), 그리고 인스타그램([hansaeyes24](https://www.instagram.com/hansaeyes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의 리더 최은주 관장은 누구?

최은주 관장(1963.10)

학력

- '87. 02 서울대 서양화과 학사
- '89. 02 서울대 대학원 미술이론 석사
- '19. 02 서울대 대학원 미술교육 박사

경력

- '98. 03~'01. 08 서울대 서양화과 시간강사
- '93. 10~'02. 06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 '02. 06~'15. 04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덕수궁미술관장
- '15. 04~'19. 03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장
- '19. 03~ 대구미술관 관장

논문 & 학술 발표

- '89. 02 전시행정의 원리와 전시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석사)
- '19. 02 R.타고르의 교육철학과 산티니케탄 미술학교 칼라- 비판 연구(박사)
- '16. 05 '사월의 동행'전을 통한 경기도미술관의 사회참여프로젝트 운영사례(학술발표)



함께 사용하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깨끗하게!**

지난 6월 13일 목요일, 동아출판 신입사원이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동아출판의 임직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신입사원 9명(이시은, 이은지, 양서영, 김완정, 정유나, 곽태림, 문조현, 이현정, 이지은)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사는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회사를 벗어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선배 및 동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회사 생활의 궁금한 점을 묻고 서로의 업무에 대해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동아출판 교육 담당자는 '신입사원들에게 동아출판 임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뿐만 아니라 동아출판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입사원 역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고민하는 동아출판에서 일하게 되어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 더 많은 임직원과 이런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 등 훈훈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Walnut

호두 아이스크림

무더운 여름엔 입맛도, 기분도 다운되곤 하지요. 이 여름날엔 에어컨 뽕뽕한 방 안에서 소파 위를 뒹굴뒹굴 구르며 달콤한 호두 아이스크림 한 입, 어떠세요?

재료소개

우유 180g, 생크림 200g, 노른자 2개, 설탕 60g, 호두 두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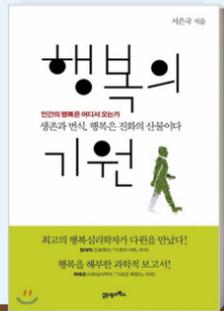
레시피

1. 달걀노른자를 볼(Bowl)에 담아 풀어준 후 설탕을 넣어 상아색이 될 때까지 휘핑해 주세요.
2. 냄비에 우유를 붓고 약불로 끓여 주세요. 너무 많이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냄비 가장자리로 기포가 올라올 정도만 끓여 주세요.
3. 휘핑한 노른자에 끓인 우유를 천천히 부으면서 휘핑기로 잘 섞어줍니다. 한꺼번에 부으면 노른자가 익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냄비에 3을 체에 걸러 담아 끓지 않는 온도로 걸쭉해질 때까지 데워 주세요. 주걱을 들어 선을 그었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모양이 유지되면 완성!
5. 4를 다시 한번 체에 거르고 냉장고에 넣어 식혀 주세요.
6. 생크림은 휘핑기 자국이 남을 정도로 휘핑해 주세요.
7. 냉장고에 식힌 우유(4번)와 생크림을 잘 섞어준 후 용기에 부어 냉동실에 1시간 정도 얼려 주세요.
8. 호두는 오븐에 5분 정도 굵거나 팬에 굽리면서 굵고 작게 썰어 주세요.
9.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포크나 수저로 부드럽게 풀어준 후 호두를 넣어 섞어 줍니다. 얼리고 꺼내는 과정을 2~3번 반복해 주세요.
10. 완성! 예쁜 컵에 담으면 더 맛있어 보여요!



“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

행복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책임아웃'의 진행자 단호박, 툴콩, 그냥, 세 사람이 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 『행복의 기원』, 『비둘기』, 『나의 까만 단발머리』를 소개한다.



그냥의 선택 - 『행복의 기원』

예빈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저의 요즘 최대 고민은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직업도 있고, 남친도 있지만 뭘 하던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땐 행복이 넘쳤는데, 저의 '행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무거운 고민인데요(웃음). 서은국 저자님의 『행복의 기원』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 뇌가 진화되어 왔다고 이야기해요. 인류사를 1년으로 압축해 보면 문명 생활이 시작된 게 고작 2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에 뇌는 아직 원시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먹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생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우리 뇌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우리 안에 있어야 사냥을 할 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하구요. 사연을 보내주신 예빈님께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복은 아이스크림이 다리는 제목의 6장이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강력한 자극이든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아이스크림을 맛보라는 거고요. “크게 불행할 거라도 없지만” 행복한 느낌이 안 든다는 건 어쩌면 지금의 상태가 이미 익숙해져서 크게 기쁘지 않은 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곧 불행한 순간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날들 중 하나일 뿐인 것 같아요.



단호박의 선택 - 『비둘기』

저는 승원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23살 아직 젊은 20대입니다. 제 고민은 꿈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중1때부터 경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어려운 가정환경과 상황들 탓에 그냥 취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얼 하고 싶고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슷한 고민을 했을 때 무슨 책을 읽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 중에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비둘기』가 있었어요. 이 소설 속 조나단 노엘이 파리의 한 은행의 경비원으로 취직하고 아주 작은 방 하나를 얻는데요. 그 방에서 계속 살면서 루틴하게 경비원 일을 해요. 조나단은 이렇게 단조로운 삶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을 사기로 해요. 이 방 안에서 평생 살아야겠다는 아주 소박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비둘기 때문에 산산조각 납니다. 어느 날 문을 열었는데 집 앞 복도에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이 방은 안 식처가 될 수 없어' 생각하면서 스스로 늪에 빠집니다. 어떻게든 출근은 했는데 계속 불운이 닥쳐요. 긴 하루를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죽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니까 포만감과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고민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비둘기가 없었어요. 저는 꿈이랑 밥벌이를 이야기하면 항상 『비둘기』가 떠올라요. 조나단이 가진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재밌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취감을 느낄 만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행복이고 꿈이었던 거예요. 승원님도 일단은 조나단 노엘처럼 살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 안에서 희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꿈이라는 건 원래 이루기 힘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승원님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꿈이 좌절됐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보면 '그 좌절이 사실은 비둘기였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



툴콩(김하나)의 선택 - 『나의 까만 단발머리』

윤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18살 고2 여학생입니다. 제 꿈은 배우입니다. 연기가 너무 좋고 꼭 이루고픈 간절한 꿈이에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십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도전해볼까요. 아님 미치도록 공부해서 대학생이 된 후 다시 배우에 도전할까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나의 까만 단발머리』입니다. 리아킴이라는 유명한 댄서, 안무가가 쓴 에세이예요. 마침 윤진님의 고민과 맞닿더라고요. 리아킴은 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춤이고, 스트리트 댄스를 가르쳐주는 학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갈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대학교 4년을 다닌다면 등록금과 여러 비용이 이만큼 들 텐데, 나한테는 2년만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춤을 배우고 영어를 마스터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쓴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내고 대학을 가지 않고 춤을 계속했어요. 결국은 세계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약간 허무감 같은 것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아주 정확한 때에 좋은 조언들을 해줘요. 이를테면 한 친구가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이제 우리의 스테이지는 여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리아킴은 '원밀리언'이라고 하는 댄스팀의 대표로 있는데, 구독자가 1600만 명이 넘고 어떤 동영상은 조회수가 1억이 넘어간대요. 리아킴의 꿈이 '세계 1위 댄서'라는 명사였을 때는 행복감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원밀리언'이라는 댄스팀의 이름도 '백만 명과 함께 춤을 추고 싶다는 바람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의 꿈도 동사가 아닐까 싶어요. 윤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원하는 게 배우라고 하는 '인기 많은 사람의 삶'인 건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연기를 하고 싶다'는 게 꿈인지,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D가 추천하는 북캉스 도서



무더위에 지쳤다면,
떠나자! 문화 바캉스

덥고 끔찍한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 마음 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차가운 아이스 커피 한잔과 함께 즐기 좋은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

눈-귀 호강 공연 & 영화 소개

공연



-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공연〉
2019. 07. 23~2019. 08. 21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서울앵글〉
2019. 09. 03~2019. 09. 15
사롯데씨어터
- 콘서트**
〈KB 국민카드 스타샵 X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2019〉
2019. 08. 09~2019. 08. 11
송도달빛축제공원
- 콘서트**
〈2019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
2019. 09. 07~2019. 09. 08
난지한강공원
- 뮤지컬**
〈헤드윅〉
2019. 08. 16~2019. 11. 03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영화



- 〈나랏말싸미〉 2019. 07. 24 개봉
- 〈엑시트〉 2019. 07. 31 개봉
- 〈봉오동 전투〉 2019. 08. 07 개봉
- 〈분노의 질주: 홉스&쇼〉 2019. 08. 14 개봉
-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2019. 8월 개봉 예정

채널예스 추천 영화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화 <로켓맨>

글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출처 채널예스칼럼 (<http://ch.yes24.com/Article/View/39051>)

어린 시절의 애정결핍으로 문제적 어른이 되는 사연은 현실적으로 흔한 편이다. 그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이 사랑 받지 못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판타지 요소가 가득한 뮤지컬 영화 <로켓맨>은 뮤지션 '엘튼 존'의 전기다. 그의 명곡들로 엮은 굴곡진 삶이 펼쳐지는데, '사랑받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엘튼 존의 고백록이기도 하다. '로켓맨'은 1972년 엘튼 존이 작곡한 노래 제목이자 그의 별칭. 우주여행을 떠나 긴 시간 동안 외롭고 쓸쓸한 심정, 지구로 돌아올 날에 대한 불안과 그리움을 표현한 곡이다. 잦은 공연으로 각지를 떠돌아 뿌리를 잃은 듯한 뮤지션으로서의 삶을 녹여내 엘튼 존의 별칭이 되었다. 영화 초반부, 어린 엘튼 존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듣고 한 음 한 음 피아노를 친다. 피아노 신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열한 살 때 왕립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음악 천재의 유전자를 물려주었으나 차가운 아버지와 신경질적인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며 '언제 나를 안아주세요?'를 읊조리던 어린 엘튼 존. 그는

뛰어난 피아노 실력과 작곡가로서의 면모, 소울 가득한 음색, 화려하고 특이한 무대 의상과 무대 연출력으로 20대에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느낄 줄 모른다. 어린 시절의 애정결핍은 엘튼 존을 망가뜨렸다. 사랑 없는 삶의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모르는, 나약하고 불안한 정서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 외로움과 온갖 중독에서 허우적대던 로켓맨, 엘튼 존은 치유시설에 들어오고 마침내 28년 만에 중독에서 자유로워진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엘튼 존이 중독을 극복한 것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끌어안으면서 가능했다. 그대로 끌어안기! 이후 에이즈재단을 설립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동성애자 남편을 만났고 두 아이도 생겼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 공연에서는 은퇴했다. 사랑받지 못함을 극복하기까지 꽤 많이 돌아온 셈이나 그의 삶은 노래로 남았다. 그리고 사랑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 모든 게 남은 셈이다. '로켓맨'은 우주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삶으로, 좀더 나은 자신으로 돌아왔다.

김태희 MD의 추천 도서
딱 하루만 평범했으면 | 태원준
여행자가 태원준, '엄마' 없는 나 홀로 여행을 떠났다. 아시아 4개국을 돌며 하루도 평범하지 않았던 유쾌한 여행기가 펼쳐진다.

김도훈 MD의 추천 도서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 | 윤계영 등
개와 함께한 시간을 노래한 댕댕이 시집. 사랑을 주고받는 게 이렇게 간결하고 확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태희 MD의 추천 도서
잊기 좋은 이름 | 김애란
소설가 김애란의 17년만의 추억과 이름을 모아놓은 에세이. 나 또한 누군가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이름들.

박숙경 MD의 추천도서
오무라이스 잼잼 10 | 조경규
1권부터 안 봐도 괜찮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먹으며 다정한 날들을 쌓아온 이 가족의 10번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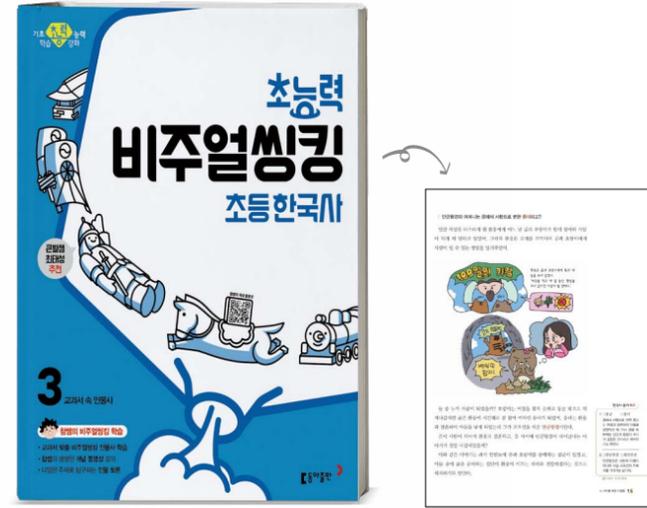
박형욱 MD의 추천도서
청담동 리나쌤의 필라테스 홈 스트레칭 | 박효영
지금 당장 운동이 필요하다면? 하루 10분, 필라테스로 자세를 교정하고 잠자는 근육을 깨우자!

김유리 MD의 추천도서
풍경들 Landscapes | 존 버거
그의 예술혼은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다. 명징하고 자유로운 지평선의 풍경들을 예술 속에서 발견하는 탁월한 그의 능력.

〈초능력 비주얼씽킹 초등 한국사〉 라인업 완성... 교과서 속 인물사까지!

동아출판은 초등학생부터 전 과목 공부의 기초가 되는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기초 학습서 〈초능력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초등 한국사를 비주얼씽킹을 활용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초능력 비주얼씽킹 초등 한국사 3〉이 출간되며 〈초능력 비주얼씽킹 초등 한국사〉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초등 한국사 1권은 선사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2권은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 3권은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7월에 출간한 〈초능력 초등 한국사 3〉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 전쟁의 영웅들, 역사 속 라이벌/괴짜/혁신가를 알려주는데요. 유구한 역사만큼 기억해야 할 인물과 사건이 많은 한국사를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초능력 비주얼씽킹 초등 한국사 3

날카롭게 선별한 고등 수학, 날선시리즈 라인업 완성! 개념기본서 〈날선개념〉 출간 완료

날카롭게 선별한 유형, 〈날선유형 스타트〉와 〈날선유형〉으로 고등 수학의 유형 정복을 도왔던 동아출판이 고등 수학 개념기본서 〈날선개념〉을 출간했습니다. 드디어 〈날선시리즈〉의 라인업이 완성되었는데요. 더 이상 고등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학생이 수학에 도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날선개념〉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날선개념〉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어 수학 개념을 확실히 소화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하는 고등 수학 개념기본서입니다. 학습 플랜을 세우고 오답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날선개념 학습 Note'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날선개념은 수학(상), 수학(하), 수학 I, 수학 II 총 4책이 먼저 출간되었으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19년 말에 출간 예정입니다.



날선개념 고등 수학(상)

날선개념 수학 I

초등 수학 전문서 〈큐브수학S 실력〉 1~6학년 출간 완료 유형 정복하고 실력을 높이자!

동아출판 〈큐브수학S 실력〉 1~2학년이 출간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유형별 문제를 학습하고 정교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큐브수학S 실력〉은 유형 정복 실력서로 3단계 학습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형 > 확인 > 강화 순으로 학습하여 유형 파악을 돕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 > 단계 > 실전 순으로 서술형을 대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1:1 매칭복으로 완벽한 복습을 도와 실력을 탄탄하게 쌓게 도와줍니다.



큐브수학S 실력

수능 필수 단어부터 심화 어휘까지 〈뜯어먹는 수능 영단어 시리즈〉 개정판 출간!

〈뜯어먹는 수능 영단어 시리즈〉의 최신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뜯어먹는 수능 영단어 시리즈〉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수험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능 영단어'계의 스테디셀러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수능 필수 영단어를 빈도순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인 암기를 돕는 〈뜯어먹는 수능 1등급 기본 영단어 1800〉, 주제별로 연상하며 암기하는 〈뜯어먹는 수능 1등급 주제별 영단어 1800〉, 수능 필수 영속어를 품사별로 익히는 〈뜯어먹는 수능 1등급 영속어 1200〉, 총 세 권으로 출간됐습니다. 영단어 시리즈에는 언제 어디서나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일일 암기장'이 제공되며, 전 제품에 포함된 날짜별 QR 코드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뜻과 예문을 들으며 자연스러운 단어 학습을 가능케 합니다. 한편, YES24에서는 〈뜯어먹는 수능 영단어 시리즈〉 구입 시 '영어 실력의 핵심! 한 손 단어장'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어, 많은 수험생의 관심이 예상됩니다.



뜯어먹는 수능 1등급 기본 영단어 1800

뜯어먹는 수능 1등급 주제별 영단어 1800



뜯어먹는 수능 1등급 영속어 1200



YES24 '한 손 단어장' 이벤트

유선의 기자의 '독서 취향 테스트'

네 번째 '독서 취향 테스트'는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휴가지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모처럼 여유를 가지고 생각에 빠져볼 만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생각을 해보고 싶은 사람

이번 휴가는 여유가 조금 있다, 집에 꼭 박혀 있거나 누군가와 함께 휴가지를 가더라도 혼자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다,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추천작 :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자. 프리드리히 니체)

어려운 책입니다.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 누구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책이 바로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이번에 니체를 정복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펴면 첫 장을 읽기도 전에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없이 계속 읽어내려간다면 다양한 상징과 비유들이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할겁니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피어 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모든 것은 꺾이고, 모든 것은 새로이 이어진다. 존재의 동일한 집이 영원히 세워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둥근 고리는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읽고 싶다고 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무슨 소린지 좀 생각해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다'고 하신다면 휴가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나 자신을 찾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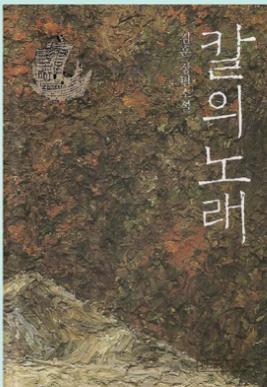


휴가지에서 정신을 정화하고 싶은 사람

일본과 사이도 안좋은데 - 휴가지에서까지 굳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진 않지만 - 휴가를 마치고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정신을 한 번 닦아보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추천작 : 칼의 노래 (저자. 김훈)

아시다시피 이 책은 이순신 장군과 그의 칼이 주인공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16세기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인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검의 이름은 일획소탕 혈염산하(一揮掃蕩 血染山河), 한 번 들어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 들인다. 나라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순신을 모함하는 간신배들, 뚱깡다고 와놓고 뚱주머니 차기 바쁜 명나라 장수들, 눈앞의 적군보다 더 위협이 되는 무능한 아군. 이들을 बे지 못해 울던 칼이 그 날카로움을 세워 적을 향하게 됩니다. 글의 내용도 좋지만, 김훈 작가의 글은 그 자체로 정신을 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아니, 눈을 정화시켜줍니다. 최근 글쓰기의 트렌드일뿐 아니라 쉽고 강렬하게 읽히는 '짧은 문장쓰기'의 국내 최고수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들기 부담스럽다면 김훈 작가의 지난 5월 한겨레신문 기고문, 아 목숨이 낙엽처럼(<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93771.html>)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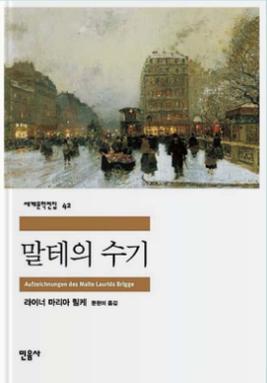


휴가지에서 감사함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

휴가지에선 업된 기분을 더 업되게 만들어줄 또다른 소설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언젠가 책에서 읽은 곳을 찾아가 또다시 그 책을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누군가와 함께 좋은 곳에 있다, 이 행복함을 극대화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추천작 : 말테의 수기 (저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

덴마크의 젊은 시인 말테는 꿈에 그리던 파리로 갑니다. 하지만 파리는 화려하지만 너무도 위험한 곳입니다. 매 순간 죽음과 불안에 떠는 말테가 쓴 수기는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기승전결처럼 통일된 줄거리의 발전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54개의 수기를 다 읽고 나면, 말테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헤어진 후,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한다. 한 번 시도해 보는 거야. 아니 써야만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팡테웅에서 성녀의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야. 기자로서, 기사엔 참 부적절한 문장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테의 수기를 읽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헤어졌지만 난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 팡테웅에서 성녀의 그림을 보고 네가 그리워졌기 때문이야. ... 이렇게 글을 고쳤다면,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건조한가요.



“힘을 내요 X-세대”

서태지와 아이들, 파격적인 패션, 압구정 로데오 거리와 강남역을 누리던 오랜 지족까지. X세대(Generation X)를 상징하던 시대상이다. X세대는 80년대 후반 또는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고 60~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워크맨과 뼈빠가 유행했던 X세대는 이전 전쟁시대와 달리 물질적 풍요 속에 개인주의를 탄생시켰다. 당시 이들은 남들과 다른 모습인 '개성'이란 이름으로 X세대를 포장했다. 사회는 이들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신인류'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X세대의 성장과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명맥을 같이한다. 컬러 TV와 함께 성장한 X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이해 할 수 없는 '서태지와 아이들'에 열광했다. 이때부터 방송국에서도 장편의 '월메이드 드라마'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역대 시청률 1~3위 드라마는 모두 90년대에 만들어졌다.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는 '여명의 눈동자'도 X세대의 관심으로 성장했다. 명장면인 철조망 키스신은 당시 고등학생 대학생이던 X세대들의 가슴을 뛰게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첫사랑' '모래시계' '질투' 등의 드라마는 한창 학창시절, 사회 진출 직전의 X세대를 열광케 했다. X세대가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바꾸고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주역으로 성장한 것이다.

X세대에게 부흥기만 있었던 건 아니다. 97년 갑작스러운 외환위기와 경제 불황은 자유분방하던 X세대에게 걸림돌로 다가왔다. 직장을 다니던 부모가 갑자기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가게문을 닫

기 시작했다. 강남의 오렌지족이라 불리던 X세대의 부모들이 사업을 접는 시기도 이때였다. X세대의 막내격인 1979년생 41살 양띠들. X세대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이제는 한국 역사상 가장 '젊은' 40대가 됐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보기에는 '꼰대'나 '기성세대'로 보이지만 이들에겐 아직 X세대의 특징이 남아있다. 지금도 소비에 민감하고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X세대에게 변화는 익숙한 환경이다. 남들과 다른 개성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다. 학력고사 대신 수능을 치른 첫 세대이고 고등학교 시절 IMF 외환 위기를 겪었다. 한창 때인 20대에는 인터넷 환경의 급발전해 선배세대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디지털에 익숙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따라하고, 압구정동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던 X세대가 이제는 마흔을 훌쩍 넘었다. 이들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직장 내에서도 중간 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더 젊어진 후배들과 선배들 사이의 '갠 세대'가 된 것도 X세대의 몫이 됐다. 한때 대한민국 젊음의 상징이던 X세대. 요즘 젊은층은 개인 SNS에 해시태그(#)를 통해 트렌드를 알린다. X세대가 지금 해시태그를 단다면... #압구정 #오렌지족 #서태지와 아이들 #드라마_질투 #마지막 승부.....누구나 머릿속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는 생각이 날 것이다. 오늘도 사회 중심에서 고생하는 X세대들이여. 기죽지 말고 '개성'을 펼쳐라! "X세대니까"



삼가하다? 삼가다? 올바른 표현은?

우리말 중에는 틀린 표현으로 더 익숙한 말들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못한 표현으로 얼마나 많이 써왔는지, 바른 표현이 더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삼가다]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동네를 가다 보면 가끔 “대문 앞 주차를 삼가 해 주세요”라는 정중한 게시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말은 삼가 해야 한다” 혹은 “흡연을 삼가 하라”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삼가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삼가 하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삼가 하다’라는 동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꺼리는 마음으로 양(量)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은 ‘삼가다’이며, ‘삼가다’의 어간 ‘삼가-’ 뒤에 어미 ‘-아’가 붙으면, ‘삼가’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적습니다. 때문에 위의 표현들은 “대문 앞 주차를 삼가 주세요”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말은 삼가야 한다” “흡연을 삼가라” 등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에도 ‘삼가’가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단어 ‘삼가’는 ‘~를 하지 말라’는 뜻의 동사 ‘삼가’가 아니라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라는 뜻을 가진 부사의 ‘삼가’입니다. 단어는 같지만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죠.

삼가하다
삼가하나다

